

메르스 환자현황	6월 21일 9시 기준
확진환자	182명
사망	32명
격리	2,562명
격리해제	13,008명
완치	91명

대구광역시 일보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제 3017호 단기 4348년(음력 5월 14일)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대구 18~29℃ 포항 19~26℃

보통반인리
맛 듬뿍, 영양 듬뿍,
가족건강 최고
(054)749-9999/010-9575-9999

세계적인 기업 대구텍의 두얼굴, 주민들 '피눈물'

대구텍,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제동 달성군 가장면 주민들, 학교 터로 있을 때는 전혀 말 한마디 없다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임박하자 갑자기 사업지 주변 주거환경문제 반대 처사는 부도덕한 이중잣대다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건설 사업 인·허가가 임박하자, 갑자기 사업지 주변 주거환경 문제를 들고 나와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주민들과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텍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자리 주변에 대구텍 소유의 위험시설물인 도시가스 정압기, 액화

질소탱크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위험물이 산재해 있어 주거환경에 좋지 못하다는 입장을 달성군과 일부 언론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지역 주민들과 사업관계자는 대구텍의 이런 행태는 잣대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민들과 사업시행사는 "대구텍의 위험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사업에 문제를 제기, 사업 시행을 늦추거나 못하게 한다면 당시 학생(대중금융공고)들이 있을 때 위험 시설물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어떻게 대구텍 제2공장 허가가 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구텍의 이런 행태는 상식적으로 그동안 학생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방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대구텍의 기업의 윤리 경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사업시행사는 "대구텍은 문제가 된 사업 터를 오래 전부터 헐값에 매입해 공장을 증설하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대구텍의 이런 이중 잣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공격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몰래 위험물 공장을 증축한 대구텍은 세계적 기업을 자랑하고 있지만 기업윤리 경영은 형편없다"고 소리쳤다.

주민들은 "주택건설 기준법에 적합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막는 진정한 목적이 뭘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달성군 가장면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 사업을 통한 인구 유입이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주택 건설이 활성화 돼 도로개설과 도시기반 시설(교량신설, 하천정비, 자전거도로 등) 확충으로 가장지역이 소외된 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게 이었다. 김영식 기자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버핏의 투자로 유명한 대구텍이 도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텍이 달성군 가장면 대중금융공고 터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대구텍이 학교 터로 있을 때는 전혀 말 한마디 없다가 달성군 가장면



오늘의 **Hot**



대구 메르스광풍 자가 격리자 8명 정신건강 위험군

메르스(MERS 중증호흡기증후군)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하거나 메르스 발생 병원 등을 다녀와 자가에 격리된 사람 중 일부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격리자 82명의 심리상담과 상태평가를 위해 광역·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통해 전화 조사한 결과 55명은 정상이지만 8명은 '중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에 속한 격리자는 없으며 나머지 19명은 검사를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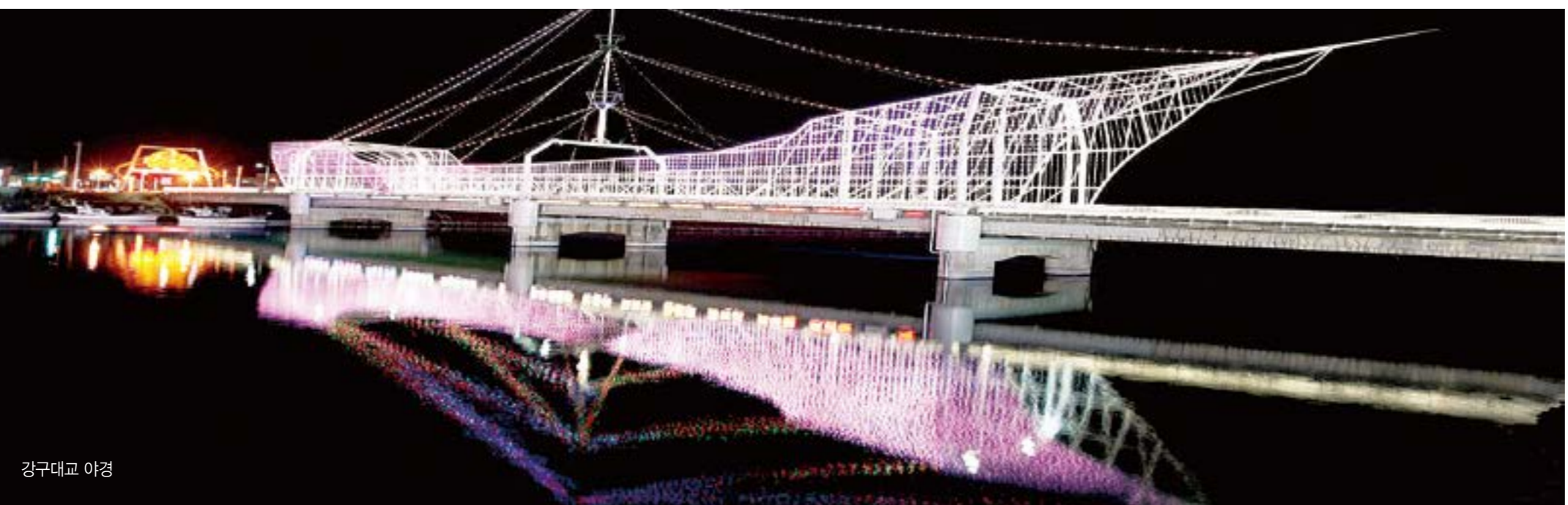
'중위험군'에 속한 8명은 직장에서의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격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위험군에 든 격리자에 대해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상태 확인과 심리상담을 계속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강증진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북대병원 김신우 교수(감염내과)는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는 물론 가족 등 주변인들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가 이들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가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메르스 확진자(154번)인 공무원 A(52)씨는 지난 24일 3차검사와 25일 4차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으로 판명돼 26일 오전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했다.

대구지역 메르스 관리대상자는 병원격리자 3명, 자가격리자 69명, 능동감시자 251명과 A씨가 머물렀던 시간대를 전후해 목욕탕에 있었던 신원미 확진자 38명 등 모두 361명이다. 박영덕 기자



강구대교 야경

대한민국 최고의 피서지는 경북 동해안이다

김관용 경북지사 경북 동해안이야말로 가장안전한 메르스 청정지역을 여름 피서객 520만명 유치특명

김관용 경북지사가 올 여름 피서객 유치에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긴급 관계자 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있어 이번 여름철이 가장 중요하다. 경북 동해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여름휴가를 즐기기에 최적지란 점을 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북 동해는 아름다운 일출, 맑고 깨끗한 바다,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하다.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피서지가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의 공간이다"라며, "공직자와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도 적극 펼치"라고 주문했다.

동·도 적극 펼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올해 지난해 467만명 보다 10% 늘어난 520만명의 피서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이미 시설정비와 안전점검을 마쳤다.

친환경 가족힐링형으로 새롭게 단장한 포항 화진해수욕장과 울진 구산해수욕장에는 각각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그 덕분에 어울림마당과 공연장, 산책로, 캠핑장 등이 보강돼 즐길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2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정비에 7억원, 인명구조 인력 및 장비확보에 6억원, 바다 유해생물 제거에 1억원을 투입하는 등 청결과 안전 확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

새달 1일에는 김 지사가 직접 동해안을 찾는다.

개장 중에는 메르스 등을 대비해 해수욕장별로 방역의료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팔할 시·군과 소방서·경찰서·해양경비안전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치안확보와 인명구조, 질서유지에 공동 대처한다.

해수욕장별로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했다.

영덕 고래볼과 울진 후포에서는 비치사커 전국대회가 열린다.

영일대에서는 국제불빛축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포항불빛미술대전, 한여름밤의 콘서트 등이, 칠포에서는 재즈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해수욕장마다 해변가요제, 댄스페스티벌, 모래성 쌓기, 전통 그물 체험, 오징어 잡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홍보마케팅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울산, 대구 지역의 주요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기업의 하계휴양소 유치활동을 펼친다. 이 때 울산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노조와도 접촉한다.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펼친다. 김성용 기자



도내 26개 해수욕장은 메르스 광풍에도 예년과 비슷한 새달 17일까지는 모두 개장한다. 지난 8일 개장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을 필두로 포항은 27일 개장했으며, 경주는 7월 10일, 영덕과 울진은 7월 17일을 피서객을 맞는다. 김성용 기자

문경시 수돗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부터 가정에 도달하기까지 철저한 수질관리와 58개 전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판정을 받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물절약 실천방안



유비무환, 물 부족대비!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주세요!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의 물!
지구에는 먹는 물이 부족한 나라도 있고, 수질오염으로 큰 위기를 겪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게 되면 우리도 곧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지혜를 모아 주세요.



문경시상수도사업소
건축신청 550-8312, 550-8338 급수공사, 누수신고 550-8331, 550-8336 수질검사 550-8344
상수도 점검, 요금, 계량기 통과 등 550-8318 상수도 시설운영 550-8337~8340 마을상수도 550-8320~8323

대구 시정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2

달서구, 자동제세동기 공동주택 3곳 추가

대구 달서구는 자동제세동기를 대곡산새마을, 월성주공5단지, 성서한빛마을 등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곳에 추가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로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환자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중요한 장비다.

의료기관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총 82대의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구산하 직원, 기관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에 대한 반복 교육을 통해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으로 삼아가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강대식 동구청장은 29일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주간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또 신암동 '보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9일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또 상록상차림서 열리는 서구회에 참석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 25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216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심사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는 지난 26일 '2014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다.

2014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규모는 세입 2조7949억원, 세출 2조6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894억원(7.3%), 세출은 2294억원(9.3%) 증가했다.

종합심사에서 세입분야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수입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세출분야는 그동안 예산집행 절차상 투명성은 확보됐으나,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일부 사업을 지적하면서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연도말에 집중하여 교부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행복학교 박람회 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 및 건의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학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재정건전화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계약 체결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25일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은 국토부가 지난 2월27일부터 4월24일까지 용역 입찰과 재입찰한 결과,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ADPI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계약체결에 따라 향후 용역 추진일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용역착수를 하고 30~4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열어 세부 과업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내년 7월께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섭 건설교통국장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대비해 국제기구의 입지평가 관련 규정, 기준, 항목 등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 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덕 기자

대구 전역 20개 시험장서 치러

대책반 구성 메르스 대비 만전

27일 오전 10시, 대구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이 대구 전역 2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응시생이 가장 많은 남구의 경산공업고등학교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속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는 시험을 앞둔 시험생들의 긴장감과도 사뭇 달랐다. 대체로 메르스 관련해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가운데,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도로 느껴졌다.

이곳에서는 대구 전역 20개 시험장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169명이 시험을 본다. 총 1만 4312명의 응시생 가운데 약 10%가 이곳에 배정됐다.

100여명의 시험감독관은 오전 7시부터 나와 공무원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소방관과 경찰관, 보건소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메르스 대책반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메르스 감염에 대비했다.

특히 응시생 가운데 메르스 의심 증세를 호소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 시험장 3곳을 마련했다. 열 감지는 없었지만, 달서소방서에서 파견 나온 소방관 2명은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해 정문을 통과하는 모든 응시생의 열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경상공고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업무차 학교를 찾았다가 “저는 수험생이 아닌데 저도 열을 체크해야 하나요?”라고 반문할 정도로 열 체크는 예외가 없었다.



내륙도시 대구, 국내 첫

비치발리볼 대회 열린다

비치발리볼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백사장에서 열린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내륙 중심인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린다.

(새대구치맥산업협회(권원강 회장)는 '2015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 중인 7월 24~26일 3일간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FIVB(국제배구연맹) 주최, 한국비치발리볼연맹 주관으로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린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를 대표하여 6개국, 7개 팀이 참가해 열띤 기량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평가전도 겸해 열리게 된다.

대구·경북에 새로 자리를 잡은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은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에 공동협찬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알리는 홍보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는 지상파와 케이블을 통해 전국에 중계될 예정이어서 대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치맥산업협회 관계자는 “치맥 페스티벌의 치킨과 맥주에다 비치발리볼의 해변 정취까지 더해져 올해 대구의 여름 축제를 알차고 다양한 볼거리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덕 기자

‘안도 반 긴장 반’... 공무원시험 진행



37.5도 이상 발열자는 보건소 직원에 의해 또 한 번 체온을 측정하고, 시험이 끝난 직후 보건소에서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게되는 서약서를 쓰기로 돼 있었다. 다행히 이날 응시생 모두는 정상체온을 유지했다.

발열 체크를 통과한 응시생들은 비치된 소독제를 통해 손 소독까지 마쳐야 시험실로 향할 수 있었다.

입실 완료 1시간 전인 오전 8시20분이 넘어서자 시험장을 찾는 응시생들의 본격적인 발걸음이 이어졌다. 마스크 쓴 응시생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지만,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전날 대구 첫 메르스 확진자가 완쾌돼 퇴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르스에 대한 경계감을 덜어낸 눈치였다.

공무원시험을 3~4년 준비했다는 김모(29·여)씨는 “얼마 전 서울시 시험도 다녀왔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이 첫 시험이라는 이모(22·여)씨는 “대구에는 이제 메르스 걱정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다. 시험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걱정거리를 하나 덜게 된 셈”이라고 웃어 보였다.

대구 동구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시험장은 일반행정직 장애인 분야 응시생(193명)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 역시 메르스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큰 불안감은 없었다.

40여명의 감독관을 제외하고 소방관 4명, 보건소 관계자 1명, 경찰관 2명 등 50여명의 직원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시험실 7개와 이들의

시험을 돕기 위한 도우미들이 배치된 것이 다른 곳과의 차이점이었다.

시각 장애인 점자 책자가 마련된 시험장으로, 지적장애인은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대필자가 준비된 시험실로 각각 입실했다.

휠체어를 타고 시험장을 찾은 A(32)씨는 “메르스에 대해 특별한 걱정은 없다. 이번 시험에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시에서 마련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인사과 문정철 사무관은 “대구시에 메르스가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각종 방역에 힘을 쓰고 있다”며 “다들 인력이 부족해 소방서와 경찰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영덕 기자

내년 총선 저울질하는 대구경북 고위 공무원들

정태욱 행정부시장 등 출마설

이인선 경제부지사도 확정적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대구경북 고위 공무원들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과거 출마설의 진원지가 범조계인 점과 비교하면 달라진 풍경이다.

이를 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이었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의 국회 진입이 이들의 정치의지에 불을 당겼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에서는 정태욱 행정부시장과 안국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출마설이 파다하다. 정 행정부시장은 대구북갑에서, 안 국장은 대구달서갑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행정부시장에 대해 북구갑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후보군들은 그의 잦은 지역구 행보를 지적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안 국장도 지역에서는 ‘이미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 행정부시장은 이 같은 지역 정가의 출마설에 대해 현재로서는 출마할 뜻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구시 안팎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경선을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 국장은 “아직 집안과 식구들, 지인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출마설은 부담스럽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출마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경북에서는 이인선 경제부지사의 출마가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부지사는 한때 대구달서갑과 대구수성갑 등의 출마가 거론되었으나 최근에 구미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부지사는 “공직자로서 벌써부터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공직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와는 상관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들의 총선 출마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덕 기자

대구, 국민안전처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소방본부, 지원금 6000만원 받아

대구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소방관서 종합평가인 ‘2014 국민행복 안전정책’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기관표창과 재정지원금 6000만원을 받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순직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5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을 2013년 도 71.1%에서 2014년 77.9%로 6.8%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소방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노후 소방차량 34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2대를 보강했다. 1만3108개 건축물에 대해 긴급구조

훈련을 해 화재 발생 시 자율적인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오대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전국 4연패의 영예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구시민들의 협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자만하지 않고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재정지원금 6000만원을 소외계층 안전시설 확충과 소방서비스 향상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우현 기자

대구 “시티투어 타고 뮤지컬 보러 오세요”

대구시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기간인 7월13일까지 대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대구시내 관광과 맛집투어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DIMF·대구시설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0% 교차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시티투어 탑승객의 경우 DIMF 관람권 인터넷 예매 후 현장수령 시 탑승권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DIMF 관람객도 시티투어 탑승해 당일 표를 보여주면 할인해 준다.

한편 공단과 DIMF는 모든 버스와 공연장을 수시로 소독하고 이용고객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비하고 있다.

박영덕 기자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3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 레지오넬라균 검사 강화

냉각수 주기적 관리 당부
에어컨 필터 2주 한 번 청소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급성호흡기질환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새달부터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레지오넬라균 검사 강화는 지난 5월부터 6

월까지 23건을 검사한 결과 3건에서 균이 검출된 것이다.
이번 검사의 레지오넬라균 검출 최저기준수는 200 CFU/ℓ다. 따라서 불검출의 경우도 레지오넬라균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냉각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25-45℃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냉각탑수, 샤워기, 가습기 등에서 증식한 후 비발형태로 호흡기

를 통해 흡입돼 인체에 감염을 일으킨다.
40세 이상 면역저하자, 흡연자, 만성심폐질환자, 노약자, 남성에게 잘 감염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은 39-40℃의 갑작스런 고열, 마른기침, 근육통, 권태감 등을 보이며, 합병증으로 폐농양, 호흡부전, 저혈압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도는 지난해 대중목욕탕 요양원, 병원, 백화점 등의 냉각탑수 및 냉·온수 584건에 대해 레지오넬라균을 검사 실시했으며, 5.3%인 31건이 요관찰 범위인 1000 CFU/ℓ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레지오넬라증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자가 냉각수에 대해 레지오넬라균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에어컨 필터 등은 2주에 한번 정도 청소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우 기자

'실크로드 경주 2015' 기개 세계만방에 떨친다

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앞장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 대장정 완성

경북도는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범 사업인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에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 실크로드 역사대장정 완성을 위한 철의 실크로드 문화특급 탐험을 시작한다.

국가적 세계문화유산대축제로 성장한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세계적 홍보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특급열차로 '철의 실크로드'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베를린까지 1만 4394km를 횡단하는 것으로 소통·협력, 미래·창조, 평화·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정부·코레일·경북도의 공동주관으로 펼쳐진다.

도는 세계문화유산실현의 비전하에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실크로드를 대담하고 역사적으로 제조명, 확산시키는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를 운영해왔다.

2013년 대표적 실크로드인 과거 역사의 2만

1000km 육상실크로드 탐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에는 해양실크로드 9개국 10개항 2만 2958km 탐험을 마쳤다.

이번 '유라시아 문화특급'은 이 역사적 성과에 이어 미래의 실크로드가 될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 '철의 실크로드' 1만 4394km 노선을 탐험해 실크로드 대탐험의 역사적 대장정을 완성한다.

지난 26-27일 세계적 일감 행사가 될 유라시아 문화특급 출발을 준비, 점검하는 종합설명회(OT)가 역사적 미래 대장정의 출발지 경주에서 열렸다.

설명회에서 경북도는 국가적 문화유산 프로젝트로 진행해온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추진경과와 성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이번 문화특급 프로젝트의 경북도의 추진전략과 구체적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8월부터는 지난 2년간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인연을 맺은 주요 실크로드 국가들을 경주로 초청해 함께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대축제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열어 문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제시하고, 문화유산 시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다.
2013년부터 경북도는 글로벌 국제관계에서 고대 동서무역 교역로였던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젝트인 코리아 실크로드 일감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감은 한국문화의 원형인 신라문화 재조명과 新한류 문화 창조, 실크로드 국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융합일감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지방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일감 추진 첫해인 2013년에는 실크로드 학술적 재조명과 실크로드 오아시스길 7개국 2만 1000km의 대탐험을 추진하며, 우리 역사·문화의 뿌리를 찾고 2013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했다.

2014년에는 경북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동서 문물 교류의 중심축인 바다실크로드 재조명, 해양민국 위상제고 등을 위해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을 추진해 바다의 가치를 되살리고 新한류 전파와 해양민국 위상 제고 등 큰 성과를 거뒀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실크로드는 우리 경북이 과거 오래 전 역사에서부터 걸어왔고 현재도 앞장서 걸어가고 있는 역사와 변역의 대장정이다. 이제 철의 실크로드인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성공적으로 탐험해 미래 천년의 운지를 함께 담아 경북문화, 대한민국문화유산의 불꽃을 세계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용·윤용찬 기자

메르스 물러가고 경제에 햇살을...



경북도 '이젠 경제다'
전 행정력 총력 다해

경북도가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여파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른 것이다.

도 이인선 경제부지사는 27일 토요일 휴일도 잇는 채 도청 전 간부 및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 영상회의'

를 열어 지역별 경제상황, 주요대책 추진실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챙겼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공직자는 메르스로 인해 타격이 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새달 30까지 온누리상품권 구입운동과 전통시장 장보기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도 출자·출연기관과 유관기관·단체 등 3만 3000여명이 온누리상품권 8억 8400만원을 구입해 참여한다.

도는 직원들에게 연가보상금 선지급분을 조

기 지금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억여원을 구입하도록 하고,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외식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119건 113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755건 384억 5600만원이 대출 준비 중이다.

지역경제상황 점검 T/F팀 운영, 수출기업 애로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농촌일손돕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도 실시 중이다.

지역 상공회의소도 기금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1사 1전통시장 갖기 운동, 전통시장 장보기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농수축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할매·할배의 날 어르신 찾아 뵙고 외식하기, 1과 1전통시장 지정, 출향인사 고향에서 장보기 및 휴가보내기 운동, 지역의 프라이드 기업(53개), 실라리안(20개) 향토뿌리기업(40개)에 1사 1전통시장 갖기 운동 등 다양한 경제살리기 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30일에는 이인선 경제부지사가 경산공설시장에서 도 상인연합회, 경산시 상인회, 상공회의소, 여성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살리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인선 부지사는 "이제는 경제다. 전 행정력을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정상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우 기자

한국의 '싼타' 딸기 상표료 받았다

중국인 입맛 사로잡은 '싼타' 딸기
국내 첫 딸기종묘 수출 상표료수령



경북도가 육성한 '싼타' 딸기가 국내 처음으로 딸기 종묘 수출 상표료를 받았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2일 '싼타' 딸기 상표료 6000불이 스페인 종자회사인 유로세밀라스 중국지사로부터 입금됐다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통보를 받았다.

상표료는 유로세밀라스사 중국 내몽골 묘생산지지의 올해 예상 생산묘수 300만주에 대한 상표료(2600만원) 중 일부를 양자 간 신뢰 차원에서 먼저 입금했다.

입금된 상표료는 금액 자체로는 소액이지만 그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원이 2011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산타딸기 중국이전 업무위임계약을 맺고 2012년 스페인 종자회사인 유로세밀라스와 중국 및 일본에 '싼타' 딸기 상표료 계약을 체결한 지 3년 만의 성과다.

농업분야의 품종보급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기술보급 보다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기간에 올린 성과

로 '싼타' 딸기품종이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결과로 분석된다.

도는 현재 본사 수익의 50%를 수령하게 돼 있는 상표료 계약을 모종 1000주당 100위엔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상표료 금액이 배로 증가해 향후 20년간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상표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딸기품종을 수출해 중국 딸기재배 면적의 5%(5000ha)를 점유해 연간 900억원의 상표료를 벌어들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소득 도 농업기술원장은 "향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 지속적으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수출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www.nonghyup.com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태백을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기를 기쁨으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농협달성군지부
가창농협협동조합

다사농협협동조합
하빈농협협동조합

화원농협협동조합
옥포농협협동조합

논공농협협동조합
현풍농협협동조합

구지농협협동조합
유가농협협동조합

사회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4

광고문의·기사제보

053)253-0000

7월 1일



경북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7월1일부터 포항, 구미, 경주, 안동 4개 권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 연료비 부담은 월 1만1070원 정도 인하다.

공급비용 부분에서 월 평균사용량 2260MJ(52㎡) 기준으로 가구당 월 5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요금 동결과 원료비 인하 등으로 실제 연료비 부담이 줄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 받는 도시가스(LNG) 원료비(약 85%)와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약 15%)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요금은 지난해 12월말 대비 원료비는 메가줄(MJ) 당 25.5% 인하된 15.2854원(중전 20.5166원),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메가줄 당 5.0% 인상된 2.3160원(중전 2.2049)을 반영했다.

소비자요금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원료비와 공급비용이 메가줄 당 22.7216원에서 17.6014원으로 5.1202원(22.5%) 인하다.

이를 부피(㎥) 당 환산하면 979.18원에서 758.53원으로 220.65원이 인하다.

도시가스사별로는 원료(LNG)비가 전 도시가스사에서 동일하게 인하(25.5%)됐고, 공급비용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구미, 서라벌도시가스(경주)가 공급물량 감소, 투자비 증가 등으로 각각 10.6%, 11.7%, 3.6%가 인상됐다. 대성정전에너지(안동)는 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3% 인하다.

김동성 청정에너지산업과장은 "세일가스 공급 확대 등으로 국제 LNG가격이 떨어져 원료비가 인화된 반면, 공급배관 건설 등 도시가스사의 투자비 증가와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산업용 도시가스 물량이 줄어들어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원우 기자

대구·경북민 메르스 안심 "수일 내 진정될 것"

대구와 경북 지역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대구·경북 지역 주민 1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5일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만 '메르스가 확산될 것'이라고 답해 지난 16-18일 결과(51%)보다 30%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울산·경남(28%), 대전·세종·충청(26%), 서울(25%), 인천·경기(24%), 광주·전라(21%) 등 나머지 5개 권역을 포함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16-18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반면 74%의 응답자는 '수일 내 메르스가 진정될 것'이라고 답해 지난 조사(35%)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경북 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인 A(59)씨가 지난 22일 4차 검사 음성으로 판정돼 퇴원하고, 메르스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아 메르스가 진정세로 돌아오고 있다는 인식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구 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인 B(52)씨도 지난 23일과 24일 3, 4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고, 26일 퇴원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누그러뜨렸다. 김영식 기자

두류공단 음식물 쓰레기 불법적치 적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현장을 조사한 결과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위치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인 T산업이 인근 야산에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는 T산업에서 약 500m 떨어진 인근의 밭에 약 1300㎡ 규모로 쌓여있다. 특히 불법 적치장 인근에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으며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T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밝히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요구했다. 윤용찬 기자



LH 장애인시설 엉터리 시공에 해명도 엉터리

2009년 11월 11에 관리지침 제정돼 그해 9월 5일 발주 끝난 관련법상 오류 없다고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장애인 점자블록이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등 부실 시공했다는 지적에 LH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설치된 인도의 경우 장애인의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정지선과 유도선, 방행표지선, 보행동선, 블라드(차단봉)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점자블록이 유도하는 대로 보행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이다.

이에 대해 LH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2009년 11월 11일 제정됐기 때문에 2009년 9월5일 발주가 끝난 테크노폴리스에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당시 점자블록설치 관련법상 설치요류는 없다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입수한 LH의 2007년 '석문 국가산업단지 장애자용 유도블록 포장 상세도'를 보면 블라드의 위치와 정지선, 유도선, 보행동선 등이 규정에 맞게 설계돼 있다.

따라서 2009년 국토부의 지침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주가 끝난 테크노폴리스에 소급적용 할 수 없고 관련법상 오류도 없다는 LH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나아가 2년전 까지만 해도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제대로 반영한 설계를 해오던 LH가 무슨 이유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장애인 점자블록에서는 설치기준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LH는 설계대로 공사를 실시한 시공업체에게 장애인 점자블록의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책임자 징계를 수반해야 하는 재시공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잘못한 것은 없지만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달성군이 지적한 사항 중 일부내용을 수용해 자체 복구반을 활용, 최소한의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준공 후 8개월이 되도록 관리권이 달성군에 이양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도 석연찮다.

LH는 2014년 1월 준공을 앞둔 2013년 말 달성군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거쳐 관리권을 이양하려 했지만

2014년 11월경 민원이 발생해 현재까지 늦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점검을 벌인 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후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권 이양 지연의 이유로 드는 것은 공색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4년 11월 민원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한 측(대구경찰서, 한국장애인총연합회)과 단 한차례의 만남이나 전화 통화도 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장애인 점자블록이 부실 시공되었다면 설계와 시공,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가려내고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영식 기자

대구 첫 메르스 환자 퇴원... 소감 질문에 '묵묵부답'

경북대병원 김신우 교수

"메르스 완치... 정신과 상담 예정"

대구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 A(52)씨가 입원 10일만에 완쾌 돼 퇴원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5병동 입구를 나와 준비된 응급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청원경찰의 보호를 받고 병동을 빠져나온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차림이었다. 휠체어는 타지 않았다.

당초에는 퇴원 소감을 짧게 밝힐 예정이었지만 A씨는 아무런 얘기 없이 응급차에 올라탔다. 한마디 들려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A씨는 퇴원 인터뷰에 응할 생각이었지만, 전날 갑자기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퇴원을 앞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28일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누나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지난 13일 오한과 발열 증세를 보이



기 시작해 1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의료원에서 치료중이던 A씨는 폐렴 증세가 악화돼 치료병원인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집중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입원 10일만에 폐렴은 물론 메르스 증세를 모두 떨쳐

버렸다.

메르스 3-4차 검사에서 두 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퇴원하게 됐다.

치료를 담당해 온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A씨는 이미 완치됐기 때문에 메르스와 관계된 치료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며 "다만 A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해 정신과적 상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를 통해서 환자의 퇴원 심경을 대신 들을 수 있었다.

그는 "A씨가 퇴원을 위해 복도를 걸어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치료해주셔서 고맙다' 인사를 했다"고 전했다.

A씨의 퇴원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권주섭(68)씨는 "환자가 완쾌 돼 퇴원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씁쓸한 마음도 있다. A씨 퇴원 후 앞으로 더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가 이날 퇴원하면서 대구시에는 메르스 확진자가 아무도 없게 됐다.

병원·자가격리 등 관리를 받은 인원은 전날보다 113명 줄어든 361명이며, 관리유형별 인원 현황은 병원격리 3명, 자가격리 69명, 능동감시 251명 등이다. 지우현 기자

대구 메르스 의심 60대, 검사 거부 후 귀가

삼성서울병원서 수술이력

"나는 환자 아냐" 검사 거부

경북대병원 "의심환자 기준

못미쳐 일단 지켜보기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인 60대 여성이 검사를 거부하고 스스로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북대병원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A(63·여)씨는 열과 기침을 호소해 경

북대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본인의 거부로 메르스 검사 없이 귀가했다.

평소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열을 동반한 기침 증세가 심해져 전날 오후 구급차를 통해 영남대학교병원(영대병원)에 이송됐다.

영대병원은 A씨가 지난달 29일부터 14일까지 유방암 수술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대구의료원으로 옮겼다.

A씨는 유방암 수술 후 달서구에 사는 딸 집에 머물며 요양을 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대구의료원에서도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버텼고, 보호자는 대구의료원과 상의 끝에 A씨를 경북대병원(경대병원)으로 옮겼다.

경대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우선 메르스 검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이곳에서도 완강히 검사를 거부했다.

경대병원 관계자는 "A씨가 '나는 메르스 환자 아냐'며 나를 환자 취급하느냐며 메르스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가 A씨를 진료했지만 열이 36도 후반에 그치는 등 메르스 의심환자 기준에 못미쳐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경북대병원측의 설명이다.

경대병원 관계자는 "A씨를 관심갖고 지켜보면서 이후에도 계속 열이 오르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다시 진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0일부로 메르스 능동감시대상자에서 해제된 상태라 검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대구 동구 재활용센터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1시간 20분만에 큰불 잡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27일 오후 2시39분경 대구시 동구 불로동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1동 2620㎡가 전소됐으며 1시간 20분 만에 큰불이 잡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여 50대, 환각 상태... 차량에 각목 던져

대구 서서경찰서는 26일 마약 투여 후 환각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각목을 던진 박모(57)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6시38분경

이날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18대와 헬기 1대, 6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으며 현재까지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 재활용품 등 불에 타는 물건들이 많아 연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며 "잔불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리 주체인 동구청과 협조해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각목을 던져던 박씨를 경찰이 붙잡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성분 검사결과 박씨에게서 필로폰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지우현 기자



WCC 경북전문대학교 전공 기초능력 증진지원사업 선정

경북전문대학교가 지난 25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하는 '2015 전공기초능력 증진 지원사업(보건의료분야 BIT Program: 빼집중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3차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공통직업교육 기반(기초능력 및 전공기초 능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과, 보급·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2015년 전공기초능력 증진지원사업 평가는 1단계 요건심사(서면평가 70%)와 2단계 전문심사(발표 및 면담 30%)로 이뤄졌으며, 기초학습 증진사업에 1개교와 전공기초능력 증진사업 3개교가 선정됐고 이 중 경북전문대학교는 전공기초능력 증진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5 전공기초능력 증진 지원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3000만원을 지원받아 보건의료분야 전공기초능력 증진을 위한 대학의 사례를 정교화하고 표준화된 학습지원자료를 개발, 확산 및 보급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황성배 교수는 "2005년 이후 물리치료과에서 운영해온 빼집중 튜터링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타 학과 및 타 대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보건의료관련 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전공기초능력 향상을 산업체가 요구하는 NCS 기반 실무능력중심 인재양성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경윤 기자



대구지역 대학생 700여명 지역 어린이 경제교사 나서

국제 비영리 경제교육기관 JA 코리아(www.jakorea.org 이사장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경북대디자인센터에서 JA Korea 대학생 경제교육봉사단 대구지역 발대식을 개최했다.

JA Korea의 대학생 경제교육봉사단은 전국 10개지역(서울/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주, 진주, 창원)의 대학생들이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경제선생님으로 활약하는 대표적인 교육 기부 활동으로 2006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8000여명의 대학생이 약 11만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은 대구지역 대학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경제교육 봉사단으로서 본격적인 자원봉사 동 전 소속감과 경제교사로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지식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으며, 학년별 교육 커리큘럼과 교수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7월 대구시 내 19개 초등학교에서 1만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대구과학대 하계 학생임원워크숍 실시

대구과학대학교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연수원에서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학생 임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학년도 하계 학생임원워크숍'을 실시했다.

1학기 동안의 활동성과와 2학기 운영일정을 점검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대구과학대 학생 임원들은 △감성캠퍼스 조성 프로젝트 경과 △2016학년도 한별제전 보완사항 △봉사활동 아이템 △재학생 만족도 상승 프로그램 구성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의원회 의장 김주식(2학년·경찰경호행정

과)씨는 "바쁜 학사 일정 속에서 여러 학과 학회장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우들이 학회에 바라는 사항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2학기에는 학우들 곁에 더 다가가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대구과학대학교 학생복지처장은 "학업과 취업준비 등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준 학생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2학기에 도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업에도

충실히 학생활동에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식 기자

성체해마신경줄기세포 사멸 경로 조절 기전 발견

DGIST, 신경줄기세포 이용 세포 사멸 연구 새로운 실마리 제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지난 25일 뇌·인지과학전공 유성운 교수 연구팀이 성체 해마신경줄기세포의 세포 사멸 경로를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을 발견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동물의 뇌에는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성체에서도 다분화능을 가진 신경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다. 신경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경계 세포로 분화해 손상된 신경세포를 대체할 수 있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의 근본적인 치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인간의 기억과 고등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 조직은 운동, 학습 등의 활동으로 해마 조직에 있는 신경줄기세포의 활성을 더

욱 높여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뇌질환이나 스트레스, 비만, 노화 등은 신경줄기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신경줄기세포 사멸을 일으킨다. 하지만 신경줄기세포의 사멸 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질환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DGIST 유성운 교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신경줄기세포의 주요 성장인자인 인슐린이 결핍됐을 때, 성체해마신경줄기세포가 아폽토시스(Apoptosis, 세포자멸사)라는 대표적인 세포 사멸 경로 대신 오토파지에 의한 세포 사멸(Autophagic Cell Death, 자가포식 세포 사멸)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유 교수 연구팀은 칼슘에 의해 활성화되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칼페인(Calpain)이 성체해마신경줄기세포의 이러한 특이적 세포 사멸 경로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인슐린 결핍으로 인한 오토파지 세포 사멸

을 겪고 있는 해마신경줄기세포에서는 칼페인 활성이 감소했으나, 칼페인 활성을 높여 주자 오토파지 세포 사멸 대신 아폽토시스로 세포 사멸 경로가 전환됐으며 이는 칼페인이 성체해마신경줄기세포에서 세포 사멸 경로를 바꿔주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DGIST 유성운 교수는 "칼페인이 신경줄기세포 사멸 경로의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며 "신경줄기세포의 세포 사멸을 조절해 신경줄기세포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면 퇴행성 뇌질환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 사멸의 예방과 손상된 신경의 재생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줄기세포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스템 셀(Stem Cells)' 온라인판 지난 18일에 게재됐으며, DGIST 뇌·인지과학전공 김은경, 문제일 교수 연구팀과 울산의대 김승후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고, DGIST 뇌·인지과학전공 정경민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DGIST 특성화지원 융합과학중점센터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김영식 기자

영천시, 명품교육도시 향해 발판 다져



폴리텍대학, 한민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중학교 순항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 눈 앞

영천시가 명품교육도시의 발판을 차곡차곡 다져가고 있다.

영천시는 현재 폴리텍 대학, 한민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중학교, 장학기금 200억 조성 등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영천시 화동동 산14-7번지 일원에 2017년까지 352억원이 투입되는 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는 2018년 개교를 목표로 6월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영천시와 폴리텍대학 관계자들이 영천시청에서 건축설계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이우영 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직접 영천 폴리텍대학 조성부지 및 보임MRO센터를 방문하고 영천폴리텍대학 내에 글로벌벤처기업센터 건립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는 항공전자전자, 항공정밀기계, 의료기기, 의료정보, 의료IT, 보건 의료 등 6개학과를 설치해 신성장 동력산업에 맞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군이 잦은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 학습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력해서 설립되는 영천한민고등학교도 경기도 파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지난 1월 영천시 설립을 확정지었다. 군차비 70%, 영천과 경북의 일반 자녀 30%로 구성되는 영천한민고는 우수 인재와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아 영천시를 명문 교육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천시 일원 2만여 평에 919억 원을 투입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2018년 개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말 제10차 식품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신령상업고등학교는 2016년까

지 총사업비 307억원을 투입 기숙사 및 실험실시설 신축과 기자재를 구입해 빠르면 2017년 3월 개교예정이다. 6월 현재 부지매입중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신령상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은 식품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최고의 기술인력 배출은 물론이고 젊은 이들의 취업난 해소와 농어촌 지역 학생 수 감소 문제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북도내 최초로 고경면에 건립 중인 기숙형 공립중학교인 가정 빛빛중학교는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6월 현재 학교공 공모와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기숙형 공립중학교는 소규모 농촌학교 간 통·폐합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시설 기반 확충과 더불어 영천시는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2년 설립 당시 2억5000만원으로 출발한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해 지난해 민선 6기 출범을 기점으로 당초 2020년까지였던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 계획을 2016년으로 앞당겼다. 6월 현재 시민, 기업인, 단체, 출향인 등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16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장은 "시정추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육발전 문제였다. 그치만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덕분에 이제 그 기반을 조금이나마 닦아나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교육을 위해 물러드는 '명품교육도시 영천'을 바탕으로 항공, 말(馬) 등 지역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영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좋은 도농복합형 도시로 바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영남대, '대학 기업가센터' 선정

대학 내 창업 관련 조직 컨트롤 타워 역할 대학생 실전 창업역량 강화 창업 활성화 기대

영남대학교가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학생 창업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게 됐다.

영남대는 지난 25일 창업진흥원(원장 감시우) '2015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3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받게 됐다. 창업진흥원은 대학이 글로벌 기업가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대학의 실전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창업진흥원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공모해 각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장 점검 및 대면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영남대가 사업 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영남대는 창업인프라와 견고한 국내외 동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학원에 기업가정신 전공을 신설하고, 창업가 과정과 사내기업가 과정을 동시에 개설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남대는 국내 최초로 대학원에 기업가정신 전공을 신설하고 경영대학과 기계공학부, 화학공학부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 과목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가 과정과 사내기업가 과정을 투트랙으로 동시 개설한다. 이는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물론,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기존 회사원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영남대는 다음달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성과평가를 거쳐 추가적으로 3년 동안 사업연장이 가능하다. 영남대 기업가센터는 기존에 대학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교육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LINC사업단과 연계해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대는 대학 내 창업지원전담 조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창업교육과정 개설, 교육모듈·콘텐츠 개발, 전담교원 확보 및 창업전문가 양성, 창업관련 전문 기관 네트워킹 구축, 창업경진대회·창업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전 창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기업가센터 사업은 지난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양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영남대가 비수도권 종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사업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지역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윤 기자

도교육청, '1만동아리 육성' 행복한 학교 조성

김천예술고 합창 동아리 '소리루스' 재능 기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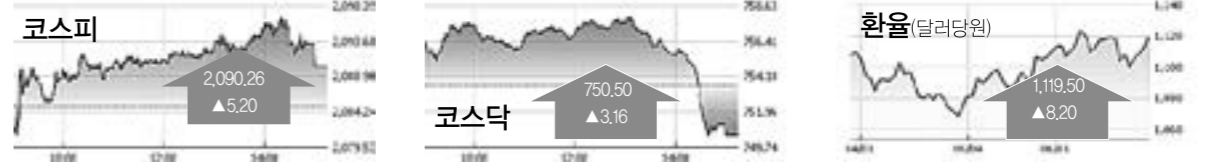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1만 동아리 육성'사업으로 동아리에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천예술고등학교 동아리 '소리루스'의 재능기부 활동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소리루스'는 2011년 30명의 학생으로 조직된 합창 동아리로 그 동안 김천교도소와 병원 등을 방문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도내 학교에 교가 MR(반주용 음악)이 없거나 피아노 반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교가를 오케스트라, 피아노, 합창



으로 구성해 전문가의 편곡을 거쳐 학생들이 직접 연주, 녹음해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0개 학교의 교가를 제작했으며, 제작을 희망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도교육청은 우수동아리 육성을 위해 교가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 이원우 기자



서한이다음 견본주택 방문객 '성황'

방문객들 입장 2시간여 동안 대기, 오픈 3일간 5만여명 방문

대구 수목원에 첫 선을 보일 '서한이다음'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지 3일만에 5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가는 기염을 토했다.

방문객들은 오픈 3일 내내 수백여미터의 줄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했으며, 점심시간까지 이어지자 (주)서한 조중수 대표이사까지 직접 나와 방문객들에게 빵과 아이스크림 등을 나누주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최근 분양한 반도유보라와 코오롱하늘채에 이어 뜨거운 대구분양시장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서한이다음' 견본주택에는 오픈 일에만 2만여명, 오픈3일간 5만여명이 방문했고 하루 1천통 이상의 청약관련 문의전화까지 쇄도해 분양관계자들은 1순위 마감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대구의 뜨거운 분양열기에 더해 도심속 공영택지 대곡2지구 첫 분양 프리미엄, 중대형 중심 단지의 희소가치, 지역대표 브랜드 서한이다음의 브랜드파워까지 갖춘 '수목원 서한이다음'은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새달 1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주)서한은 29일 견본주택에서 접수와 추천이 이뤄지는 특별공급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양대행사 박재현 팀장은 전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한 50대 주부는 "서한이다음이 자리하는 위치는 도심생활과 자연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최근 4차순환선



과 테크노폴리스 직통도로 개통에 대구전체의 중심지가 됐다"며 "그동안 기존 집값도 많이 올라 새 아파트로 옮겨가기 여의치 않았는데, 대곡2지구는 공영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상인, 유흥지구보다 훨씬 저렴해 다시 없을 기회로 생각해 오게 됐다"고 말했다.

(주)서한 김민석 이사는 "모두가 투자시장에 발맞춰 중소형만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대형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많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가장 쾌적한 도심에 공급하는 것인 만큼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자자보다 꼭 이 집에 살고 싶은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목원 서한이다음의 견본주택은 대구 수목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청약통장 6



개월 이상 납부하고 총금액 400만원 이상이면 74㎡, 84㎡, 99㎡, 101㎡ 어느 타입이나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 총금액 250만원일 경우 74㎡, 84㎡만 청약가능하다. (분양문의: 053-656-4800) 자유현 기자

각계 전문가 참석, 中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방안 토의

aT대구경북본부, 농식품 자문단회의

aT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국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6일 노보텔 회의실에서 '2015년 대구경북 농식품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본부는 이날 한·중 FTA주요 내용, 중국 농식품 수출시장의 특징 및 최근 수출동향, 수출 애로사항 및 대응방향 등 중국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위원들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가공식품 수출 확대 △농식품 수출 강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aT의 수출지원정책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 △aT 해외사무소의 해외시장 정보 제공 강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



공제품 생산 확대 △대구경북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 증진 등을 주문했다.

이성진 본부장은 "중국 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지자체, 농식품가공업체,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인 협치를 강화해 대구경북지역 농식품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현 기자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

중기청은 29일부터 3개월 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 판매한다.

28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판매는 최근 메르스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추석 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12개 시·

도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방중기청,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상품권 취급상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시 시행했던 특별할인판매를 감안, 1200억원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를 통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북대구농협, 조합원 복지증진 이시아요양병원과 업무협약

북대구농협은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5일 회의실에서 이시아요양병원(병원장 박승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북대구농협 정진호 조합장과 이시아요양병원 박승국 병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 농협과 병원 간에 사업시너지를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을 다짐했다. 또 북대구농협이 병원식당에 신선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료조합원의 병원이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조합원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북대구농협 정진호 조합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사랑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DGB대구은행, 김천 15만명 인구늘리기 캠페인 지원

'김천 15만 사랑적금' 출시 김천 전입신고 주민 우대금리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지난 26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사랑 15만 인구회복운동 지원의 방안으로 마련된 '김천 15만 사랑적금' 개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김천시에서 주요시책으로 진행하는 '15만 인구회복운동'에 지역대표 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적극 동참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박보생 김천시장과 박인규 은행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5만 인구회복, 김천의 자존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천시 15만명 인구늘리기 캠페인은 지난 3월 '15만 인구회복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김천사랑 주수값기 운동, 혁신도시 이전기관 교류대회,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인구회복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대표기업으로 김천시 15만명 인구 늘리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발대식 참여, 김천지점 직원 자발적 김천시 주수 전입 등의 운동으로 인구 확산 운동을 후원하고 있다.



김천시 인구 확산을 후원하고자 DGB대구은행이 출시한 '김천 15만 사랑적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김천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에게 기본금리에 특별금리 0.5%를 추가 제공하는 상품이다. (1인 1계좌, 가입금액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박인규 은행장은 "DGB 김천 15만 사랑적금 상품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출

시되는 2%대 적금 상품으로, 김천시의 새로운 주민이 되는 지역민들에게 주는 선물의 개념으로 마련됐다"며 "DGB대구은행은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금융기관으로 김천시의 인구 15만 늘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캠페인 참여, 적금 안내장 주민센터 비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규목 기자

7월 우체국체크카드와 함께하는 SUMMER 이벤트

행사기간 2015. 7. 1 ~ 7. 31 (1개월)

01 고객님 - 반갑습니다!!
우체국체크카드 발급 후 1회 이상 이용시 CGV상품권 1매 증정(기초회원, 300명 한정)

02 고객님 - 감사합니다!!

- 1. 30만원 상당 한우세트(5명) 10000원 상당 상품권
- 2. 20만원 상당 한우세트(3명) 15000원 상당 상품권
- 3. 10만원 상당 우삼 1kg(30명) 15000원 상당 상품권
- 4. 22만원 상당 불기름떡(100명) 15000원 상당 상품권

※ 응모 방법 : 자동결제(전신수입)
※ 당첨자 발표 : 2015. 8. 14.(금)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게시

우체국체크카드와 함께하는 SUMMER 이벤트

신규 가입 고객·체크카드 우수고객 푸짐한 경품 제공

경북지방우정청(청장 이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 고객만을 대상으로 '우체국체크카드와 함께하는 SUMMER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체크카드를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이용금액에 따라 한우세트, 홍삼, 우삼, CGV영화상품권, 우체국쇼핑상품 등 푸짐한 경품을 총 145명에게 제공한다.

당첨자 명단은 8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다.

우체국 체크카드는 대형할인마트, 인터넷 쇼핑, 베이커리 이용시 5% 할인되는 'Start체크카드'와 학원, 도서, 편의점, 병원 등에서 사용시 10% 캐시백되는 '행복한 체크카드', 젊

은 층을 위한 '영리한 체크카드', 통신회 절감 및 전 가맹점 0.3% 포인트가 적립되는 '다드림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변화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발급사로 참여해 '국민행복 체크카드'가 새달 1일 출시될 예정이다. 아이행복카드 기능이 포함돼 있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추후 별도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우체국서비스(우편, 택배, EMS, 우체국쇼핑) 할인 혜택을 탑재하고 있어 멀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형 예금영업팀장은 "이번 이벤트는 대구·경북지역 고객만을 위해 진행되며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체크카드를 통한 풍성한 사은품 혜택이 돌아갈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하는 상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 SUMMER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이나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현 기자

롯데백 대구점,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MOU체결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정신건강증진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6일 대구점 문화센터에서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및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점에 따르면 백화점의 서비스업은 감정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노동이란 대인·대면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내보이는 것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활발히 나설 계획이다.

양측은 인적자원 연계 및 지원활동을 통해 향후 대구점 직원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임준원 롯데백화점 대구점장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모되는 직원들의 정신적 에너지가 상당함에 따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그간 신체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현 기자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 특성화고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는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특성화고 출신 신규직원 5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장 교부식에는 신규직원의 부모

와 은사도 함께 참석해 사회 초년생으로서 새 출발하는 자녀와 제자들을 응원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학교장이 추천하고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된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 등을 치렀으며 이 중 권유씨 등 5명이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원우 기자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7

달성 고령
성주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김문오 달성군수는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달성군 민선6기 주요현안사업 보고회'에 참석한다.



성주군, '농업도 경영!!'

실천하는 강소농 10% 소득향상

성주군은 '농업도 경영!!'이란 슬로건으로 실천하는 강소농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10% 소득향상을 위해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가야산관광호텔에서 농업 경영관련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실적인 농업경영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농업경영 컨설턴트의 지도와 도움으로 참여농업인 개개인 별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토론이 이뤄지며 농업경영의 필수항목과 우수사례 소개 등이 이어졌다.

특히 농업인 참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영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과 경영 장점을 스스로 찾아 실천계획을 세우는 능가 참여형 알찬 교육으로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두상 기자

성주군, 잠복결핵감염

무료치료 받으세요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대상자에 대해 치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몸 안에 소수의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객담검사와 흉부사진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김항군 성주군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줘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율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을 낮추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핵 관련 상담 및 검사는 성주군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방문하거나 문의(054-930-8124)하면 된다.

김두상 기자

고령소방서, 상반기 감염방지 위원회 개최

고령소방서는 지난 24일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구급대원의 감염관리 및 안전제고를 위한 상반기 감염방지 위원회를 개최했다.

고령소방서 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감염위

원회는 이동현 전문의사와 구급대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구급대원의 감염방지 및 개선책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메르스 감염방지대책 △감염방지에 관한 토론 및 현장 구급대원들의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이동재 대응구조구급과장은 "구조·구급대원들의 건강 및 감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메르스 등 전염병 안전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도시디자인 발전... 달성군-디자인단체 뜻 모았다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한국경관학회 협약

달성군은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한국경관학회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문오 달성군수와 학회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군 도시경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도시건축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역량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상호 협력·발전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달성군은 학회와 더불어 도시디자인 분야의 정책연구, 아이디어발굴을 위한 학술연구 등을 공동추진하며, 관학연계 프로그램(포럼, 세

미나, 공모전 등)을 개발하고 공무원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를 지원 받는다.

또 도시특화를 위한 도시경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국가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을 협력하고 포괄적인 인적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향후 '물과 도시'라는 주제로 창생디자인·도시재생활성화 전략을 국내 최초로 이수화해 달성군 도시 위상을 높이고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국제포럼을 2015년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달성군은 포럼을 통해 국내 굴지의 기관 및 학회와 관계망을 형성하고 인지도를 향상시켜 추후 여러 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추진에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분야의 전문지식,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달성군의 도시경관발전을 도모 하겠다"고 밝



히고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공간의 자랑하는 대구의 뿌리 달성이 품격 있는 도시로 변모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달성 꽃피다!' 희망 글판 설치·운영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위로와 감동을

달성군은 공공기관 외벽에 누구나 좋아하고 공감하는 한 줄의 글귀, 구절, 격언 등을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달성 꽃피다! 희망 글판'을 6월부터 설치·운영한다.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공공기관 외벽에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우연히 마음에 와 닿는 한 줄의 글귀,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준 구절 등 누구나 공감하고 좋아하는 시, 수필, 격언, 어록 등을 주기적으로 게시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 감동을 심어주기 위해 6월부터 '달성 꽃피다! 희망 글판'을 설치·운영한다.

달성군은 '희망 글판' 설치로 삭막한 공공기관 외벽을 군민들에게 감동 주는 공간으로 조성해, 삶에 지치고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강조한 글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20만 군민의 힘이 하나 되는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6월 제1회 희망 글판은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 시련, 고통, 실패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줘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나눔과 배려가 충만한 달성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수동님의 '동행'이 실려, 화원을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다시금 달성문화센터에 처음 게시했다.

'다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테니 길가는 동안 내가 지지치 않게 그대의 꽃 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이수동(화가)은 대구출신으로 절제된 이미지와 매력적인 제목,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화풍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화가이며 2000년 KBS 드라마 '가을동화'의 주인공 윤준서(송승헌 분)가 그린 그림의 실제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드라마 '겨울연가', '여름향기', '봄의 왈츠'시리즈의 타이틀 글씨를 써서 누구나 좋아하는 화가이다.

한편 달성군은 오는 8월-9월 게시자료를 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설치할 계획이며, 읍·면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설치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성주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군의원, 성주문화원장, 경북도 문화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사)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과 추진해 온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용역수행기관의 전영준 책임연구원은 조선전기 4대사고 중 하나인 성주사고를 비롯한 성주읍성, 사직단 등에 대한 역사적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구상한 본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장석하 경북도 문화재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

가 있었다.

이 사업은 성주군 성주를 경산리, 백전리, 예산리 일원에 성주군 상징 역사유적(성주사고, 성주읍성 및 복문, 성주 사직단 등)을 복원·정비해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지체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주 역사테마파크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자 성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관광객 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상 기자



고령군 김정배·유병욱씨

통학생 안전위해 교통지도 봉사활동

고령군 다산면 2차 금류강남타운에 거주하는 김정배(72·상곡4리 노인회장)씨와 유병욱(53·상곡4리 이장)씨는 평소 출근길이면 좁은 도로에 차량, 보행자가 뒤섞여 사고위험이 많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지난달부터 매일 1시간정도 교통지도 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 통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정배씨는 "최근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해가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72세의 고령(高齡)의 나이이긴 하지

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도록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도 열정으로 해병전우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군단위 대구모형사장에는 항상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김용현 고령군 다산면장도 지난 1월 초 다산면으로 부임 후 금류강남타운 진입로 160m 구간의 민원 불편사항을 접수한 후 기업계좌로 건의해, 지난 4월말에 고령군에서 예산을 투입, 교통안전 시설물(탄력봉)을 설치했다. 또 불법주차 해소와 주민들의 편의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 등 보행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양수 기자

2009년 경상북도 최우수브랜드 선정 · 2010년 청와대 남품

고령의 명품쌀 고령옥미

고령옥미는 쌀 한 톨, 한 톨에 농업인의 정성과 농촌의情有 담았습니다.

고령옥미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삼광벼로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철저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고령옥미는 깨끗한 토양, 맑은 물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한 보배로운 쌀입니다.

구입처 www.gmall.co.kr
 고령RPC_054955-9512 고령군농업기술센터_054950-6262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8

포항 경주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분야별 주요성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29일 오후 '안강(칠평천)·서면(심곡천) 지역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포항 다문화가족에 후원 결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포항스틸러스, 그랜드에비뉴 이마트(포항점, 이동점)

지난 27일 오후 흥경기가 진행된 포항 스틸야드 경기장에서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주)포항스틸러스, 이마트(포항점, 이동점), 그랜드에비뉴가 이혼 또는 사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6세대에 대한 후원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결연식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유니폼, 싸인볼을 제공하고 스틸야드 경기장 스키야크스에서 경기관람 및 포항스틸러스 선수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결연식 행사에 참여한 손 군(16세, 다문화가정자녀)은 "포항스틸러스 팬이었는데 선수들을 바로 앞에서 만나보니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난다"며 "열심히 해서 형들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결연 행사에 대한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번 다문화가족후원에 참여한 이마트(포항점, 이동점)는 스틸러스 선수들이 경기에서 한 골을 넣을 때마다 20kg 백미 3포를 후원해 상·하반기로 나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후원할 예정으로, 현재 상반기 69포의 백미를 적립해 전달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그랜드에비뉴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11월경에 전달할 계획이며, 축구사랑 나눔재단에서는 1%의 나눔기금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호 기자

본사 인사

- 편집국 지방부
- △ 권혁동 기자(포항담당)

경주시 권상택 내남면장, 국가유공자 가정 방문

내남면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5일 관내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했다.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인 김상문씨(85)

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하며 "요즘 젊은 세대들의 병역기피 등의 세태를 꼬집으며 분단 조국의 미래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권상택 면장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단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고향 사랑의 마음이 곧 나라와 이웃 사랑의 첫 출발임을 명심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열을 젊은 세대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형 강소기업, 세계적 기업으로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지원기관 MOU 체결식

포항시가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2015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7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지원기관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은 Surround View 차량용 블랙박스 우수기술을 보유한 베이다스(대표 이준식), 고효율 LED를 만드는 PSS 기술을 보유한 SSADT(대표 이호덕), 가변식 슬라브통의 연동장치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성중공업(대표 권오을) 등 17개 기업이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에 대해 3년간 경영진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중소기업청, 산업부 지정)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를 비롯한 포항시의회, 포스텍,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포항상공회의소, 대구은행 등 유망강소기업 지원기관들은 MOU 체결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실한 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선정기업 17개사 대표들에게 유망강소기업 지정서를 수여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항경제 발전에 핵심동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해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17개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포항을 대표하는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정수 기자



포항시청 새살림봉사회,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죽도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부인들의 모임인 새살림봉사회 회원 50여명은 지난 2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기를 북돋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기 경제회복을 위해 죽도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 지역 농수축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앞장섰으며, 메르스로 인한 경기불황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죽도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격려함으로써 상인들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

새살림봉사회 회장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작은 힘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단체 및 기업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살림봉사회의 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경주 동부사적지 주변 새단장

침성로변 등 동부사적지 일원 4억5천만원 들여 경관조성 사업

관광도시 경주의 대표 사적지인 침성로 주변 동부사적지 일대가 새롭게 단장된다.

경주시는 훼손된 침성로 수벽 및 동부사적지 내 잔디 정비로 사적지 경관을 개선하고 경관조명 등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하고 고품격의 사적지 관광환경을 조성코자 '동부사적지(침성로변) 경관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경관공사 2억원, 조경공사 2억5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들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내용 중 경관공사에는 웬스 경관조명(라인바 LED 15W) 239등, 원형 투광등(LED 50W) 90등, 조명 제어반을 설치해 야간의 사적지 경관을 새롭게 꾸미며 조경공사로는 수벽 정비 및 보식, 디자인 울타리(450m), 꽃단지 코코매트(1km), 수목보호 벤치(3개소), 데크계단 설치, 침성로 주변으로 쥐똥나무(3730주) 식재 등으로 침성대 주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휴게쉼터를 설치, 쾌적한 관광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기준 대동원·동궁과 월지(구 안압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약 250만명으로 이번 정비 사업으로 주변의 월성·계림·



국립경주박물관·황복사지 터를 비롯한 한여름 연꽃과 함께 하는 꽃밭속의 축제 행사등과 연계, 경주의 새로운 관광자원화 등 사적지의 깊은 역사의 향기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윤용찬 기자

대구광역시 환경경매인

다함께 참여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줍시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 아껴쓰고, 나눠쓰기
- 여름철 노타이, 겨울철 내복입기
- 종이사용 줄이기
- 음식물쓰레기 없애기
- 완전 분리배출
- 실내 적정온도 유지
- 여름 26~28°C, 겨울 18~20°C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 걸거나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버스) 이용
- 나무 심고 가꾸기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1. 테이크아웃컵 사용 줄이기
2. 매장내에는 머그잔! 유리잔!
3. 분리수거!

지구살리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9

경산 영천
청도 영덕
울진 울릉



최영조 경산시장은 29일 우편수취함 설치·새 우편번호제도 홍보를 위한 경산시-경산우체국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29일 실과, 소장 및 읍면장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청도, 수확기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청도군은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5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관내 모범영사로 구성, 새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총 2개단 19명을 산동·산서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 기간 중에 야생동물 피해농가가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이 가능하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청도군에서는 주민과 영사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총기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을해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60농가에 대해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이승을 청도군수는 "201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용규 기자**

강구일방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방문**하셔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립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청도군, 운문댐 하류보 하상정비 실시

청도군 운문면은 지난 25일 운문면 직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운문댐하류보 둔치관리인부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문댐 하류보 하상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운문댐 하류보 하상정비작업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운문댐 하류보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피해가 우려되는 구역

에 사고예방을 위해 수중 오염물과 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도재천 운문면장은 "아름다운 생명을 청도 운문면을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물놀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명품관광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용규 기자**



경북TP,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2015년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사업 BM기획형 선정

경북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5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비즈니스모델(BM : Business Model) 사업화 기획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기획과제는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과 우수한 BM을 발굴하고 시장분석과 마케팅전략 수립 등의 사업화 기획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2단계 사업화 과제는 기획과제 중 시장에서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별해 제품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부품소재기술의 양산공정

개발 및 사업화' 과제는 경북테크노파크와 입주기업인 ㈜세라트랙 그리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및 공동 R&D를 포함하는 BM사업화 기획을 추진하는 과제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가 구축하고 있는 해외 테크노파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과제는 전국에 총20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테크노파크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사업화 기획을 지원하는 형태는 경북TP와 전남TP가 선정됐다.

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 원장은 "경북TP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BA: Business Accelerator)으로 거듭날 것이며, 지속적으로 경북지역의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운 기자**

울진군수-강석호 국회의원, 가뭄 현장 점검

가뭄상황 따른 급수 사정 설명

임광원 울진군수는 지난 26일 울진읍 고성



리 남대천취수장과 근남면 울진군지방상수도 취수장, 왕피천 보조취수장에서 강석호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보조취수원, 표층지하수 등 가뭄상황에 따른 급수 사정을 설명했다.

이날 가뭄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울진군을 찾은 강석호 국회의원은 "단계별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와 상수원 확보방안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울진군 관계자들의 한해극복 노고를 격려했다. **김형삼 기자**

영덕,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풍수해대비 안전교육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위한

민관합동 업무협약 맺어

영덕군은 지난 25일 오후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해 법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정책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① 예방단계 → ②대

비단계 → ③대응단계 → ④복구단계 등 단계별 안전관리 행정처리 절차를 영상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앞서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경북도옥외광고협회 영덕군지부(회장 정성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율정비구역 7개소(영덕읍 3, 강구면 2, 영해면 2)를 지정했으며 나머지 6개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영덕군에서는 1년 동안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및 필요한 장비를 대여 또는 지원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승권 기자**

영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열려



체계적 성과관리 위한 행정력 기능 척도 마련

영덕군은 지난 2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5년도 영덕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 설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체평가는 성과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에 발맞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평가를 통한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체평가 운영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17개부서의 160개 평가지표와 행정주요시책 8개 분야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 후 확정했으며, 이번에 확정된 평가 지표는 연말에 평가

위원회를 개최·검증·심의해 부서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덕군은 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자체지표 성적 80%를 반영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주요 국정평가에 반영되는 시책평가지표 20%를 반영해 중앙-도-군으로 연결되는 성과평가 연계체제를 구축, 성과를 겨냥할 계획이다.

이로써 내부적으로는 업무추진 방법을 개선하고 외부적으로는 책임성 확보와 군의 신인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자체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부진사항도 도출하는 등 평가결과를 환류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



경산시, 경산고등학교 '친구야 학교가자'

학업중단 예방 캠페인 활동

경산고등학교는 지난 25일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친구야 학교가자'는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 친구사라 동아리 부원, 학생회, 교직원 등이 어깨띠를 매고 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캠페인에서는 또래의 소리를 가장 가까

이에서 듣고 있는 또래상담과 또래조정 활동을 하는 친구사라 동아리부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과 힘겨움을 함께 하고 학교생활에서 배려, 존중, 공감 이 되는 또래 공동체로서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교 관계자는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학교 안에서 미래를 꿈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함께 가꾼 푸른 숲,
함께 나눌 푸른 꿈

영덕군 산림조합

- | | |
|---------|--------|
| 조합장 박기원 | 이사 김일규 |
| 이사 남진호 | 이사 김석근 |
| 이사 차자극 | 이사 이화우 |
| 이사 황수호 | 감사 임정근 |
| 이사 박태호 | 감사 김정승 |

영덕군산림조합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10

의성 월롱사, 이웃사랑 나눔실천 쌀 기증

대한불교 천태종 월롱사(주지 도현)에서 백미100포(20kg/500만원 상당)를 의성군 내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월롱사에서는 의성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의성군노인복지관 인근 부지를 매입, 경로식당 부지로 사용토록 의성군에 기부제납 했다. 더불어 평소 노인복지관의 협소한 주차공

간으로 어르신들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우려해 월롱사 소유 1000여평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제공했다.

평소 월롱사 주지스님은 의성군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 나눔을 위해 몸소 실천하는 등 복지 발전에 힘쓰고 있다.



박재성 기자

구미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칠곡

구미, 국가지원예산 확보 중간보고회 가져

중점 확보대상 사업 56개

사업비 5463억원 ...

전 행정력 집중 적극대응

구미시는 지난 26일 오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중원 부시장 주재로 '2016년 국가지원예산 확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해당사업 실적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국제 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부서간 국비확보 노하우를 공유, 내년도 국가지원예산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다짐하는 자리였다. 2016년 국비확보대상사업으로는 구미와 연

계되는 1조400억원이 대상으로 전자료리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등 55건이 국가지원 예산 확보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정부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 2098억원, 해외통신사업자 인종별 구축사업 420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폐수중말처리시설설치 80억원, 전자료리기3D프린팅 제조 혁신 허브센터 구축사업 90억원, 경북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380억원 등이다.

한편 최중원 부시장은 지난해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16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중앙부처와 함



계 지역현안사업 당위성을 기획재정부를 방문, 설명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및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과

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남유진 구미시장은 29일 오전 3층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9일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한다.



의성군, 공무원 창의경연대회 개최

특특 튀는 아이디어 경쟁 지역발전의 새로운 바람

의성군은 지난 25일 오후 의성군민회관에서 공무원 창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표와 함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공무원 창의경연대회는 민선6기 김주수 군수의 관심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난 분기에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115건의 제안을 받아 가능성 검토를 거친 최종 29건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대회결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손다정씨의 '의성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이밖에도 '노인 운전자량 안전표지 발굴'과 '마늘농가 출하 편의를 위한 마늘공판장 개장', '자연을 품은 베이커리 스토리가 있는 지역식품개발', '게릴라 가드닝', '의성 홍보단 운영' 등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의성군은 이번 창의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들에게 오는 7월 직원 정례대회 시에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의성군은 앞으로도 직장 내 연구·연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고,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창의경연대회를 매년가마다 지속적으로 개최, 좋은 아이디어는 군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업무를 연찬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군위, 프리미엄 농산물 새소득원 개발 발빠른 대응



군위군농기센터 기후변화 대응 실증시험포 아열대작물 시험재배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기온은 1.8도 올라, 세계 평균인 0.8도의 2배가 넘었다고 하며 고온 현상과 집중호우, 가뭄 등의 이상 기후의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 기후는 농작물 재배와 도시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성향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아열대 작물 및 기능성 신종작물의 실증시험 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새기술실증 시험포에는 현재 아티초크, 오코라, 양민, 방울양배추, 아로니아 등 지중해, 중남미 원산의 아열대작물이 2000㎡에 달하는 면적의 노지와 시설에서 시험재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위군은 도시 근교에 위치, 시설채소와 과수농업이 발달하였는데 최근에는 기온 상승에 따라 사과 등 기존 온·한대 작물재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신소득작물 육성이 시급하다며 실패의 위험이 있는 아열대 작물의 시험재배를 통해 지역 내 재배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수한 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에 확대보급하여 차세대 농가소득작물을 육성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 '仁同 Clean 봉사단' '극비수사' 영화관람 힐링타임

구미시 인동동에서는 지난 26일 오후2시 MEGABOX구미강동점(대표 김동일)에서 '仁同 Clean 봉사단' 단원 50여명이 '극비수사(주연 김윤석)'를 단위로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영화 관람은 지난 1월 12일 MEGABOX 구미강동점과 인동동이 '仁同 Clean 봉사단'

의 365일 깨끗한 인동만들기를 위해 무료영화관람 업무 협약(매 분기 1회씩 제공)을 체결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27일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됐다.

무더위 속 근무로 인해 지친 봉사단원들은 영화 관람으로 평소 애용 스포츠와 피로를 말끔히 풀었고, 영화를 단체관람하면서 봉사대원으로서 소속감 등을 확인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클린 인동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진 기자

칠곡, 낙동강 축 호국·평화 메카 발돋움

칠곡보 일대 호국관광 벨트화 사업 조성진행

칠곡군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칠곡보 일대에 호국관광 벨트화 사업이 한창 조성 중이다. 낙동강은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이며 최후의 보루로 반격의 계기가 된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올해 10월에 548억원이 투입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개관을 시작으로 끝별나라 체험관(100억원)과 향사아트센터(80억원)를 조성하는 등 호국과 평화의 성지로 단장 중에 있다.

또한 관호산성 공원(160억원)과 오토캠핑장(20억원) 등 낙동강 수변개발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낙동강 22km물길을 따라 걷는 역사너울길(118억원)과 덕산체육공원(49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수변레저 공원(157억원)은 낙동강 주변 경관과 어울러진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

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친수공간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인근 오토캠핑장과 관호산성 공원과 연계로 그 인기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2차 사업으로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90억원)과 포남지구 체육공원(46억원)을 착공하고,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조성(28억원)을 추진하는 등 호국평화공원 주변으로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 1396억원을 투자, 향후 칠곡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3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후세대에게는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축전 연계행사로 호국평화기념관 개관식과 향사아트센터 가공식을 갖고 향사 박물관 명칭 기념 가야금 병창대회와 호국로 걷기 체험,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군위군 고로면, 볼거리 '사랑의 꽃동산' 조성

군위군 고로면은 지난 24일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랑의 꽃동산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꽃동산 조성행사는 학생가리 일원에서 실시했으며 고로면 바르게 살기위원회 회원,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자, 고로면 사무소 전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작업내내 협동하고 화합하는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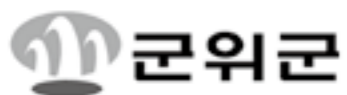
한편 군위군 고로면은 꽃과 군위댐이 어울



어진 청정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아미산과 인각사 등 많은 볼거리와 매년 10월 중 삼국유사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박재성 기자

첫인상

「삼국유사」의 고장 - 군위 언제나 푸르른 민족역사 1번지입니다. 군위에서 태어난 우리의 보물, 한국인이면 자랑삼는 「삼국유사」는 군위의 첫인상입니다.



716701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 대표전화: 054-883-2418 | www.gunwi.go.kr

「삼국유사」가 태어난 화산(火山) 인각사(仁각寺). 보각국존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으로, 경내에 보물로 지정된 그 옛 탑과 비가 있다.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인각리서로 250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11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청송
영양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예천군, 다중이용시설·캠핑장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예천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 이용시설과 캠핑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예천군, 대구지방경찰청상주지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문경소방서 등 관련분야 전문가 9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점점검 대상 시설인 예천상설시장 및 홈마트, 회룡포 오토캠핑장 등 3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소화장치,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물 상태는 물론 여름 휴가철 캠핑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점검결과 안전 취약분야와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했다.

황원식 기자

청송군, 가뭄시 부족한 식수 등 생활용수 2018년도 해결 가능

청송군은 장기화 가뭄시 생활용수 부족한 청송상수도 취·정수 시설을 증설을 오는 2018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군은 총사업비 총 392억원을 투입해 현재 상수도 급수보급률을 61%에서 89%로 끌어 올려 양질의 생활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기화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활 식수까지도 부족해짐에 따라 이러한 생활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뤄졌다.

최근 장기화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활 식수까지도 부족해짐에 따라 이러한 생활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뤄졌다.

한편 청송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단장 김영진)이 최근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을 위해 최근 식수 1.80, 1386명을 지원했다.

이창재 기자

청송경찰서, 영예로운 정년 퇴임식 열어

35년간의 경찰생활을 마감하는 청송경찰서 황시원 수사과장의 정년퇴임식이 지난 2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가족과 동료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황 과장은 “한세월 경찰 봉직을 마감하면서 동료 후배 경찰관 덕분에 무사히 정년 퇴임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영원한 경관으로서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황 과장은 공로패와 옥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

후배 경찰관들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늘 경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안동시 영문고등학교 한국전쟁 추념식·참전 16개국 국기계양식 열어

올해로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았다.

안동 영문고등학교는 매년 이때가 되면 전교생이 참여하는 6·25 기념행사 ‘한국전쟁 추념식 및 참전 16개국 국기계양식’을 연다.

이 행사는 올해로 벌써 일곱 번째를 맞고 있는 만큼 영문고등학교의 전통 있는 특색교육이다.

올해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26일 오전 9시 학교 강당에서 소규모 행사로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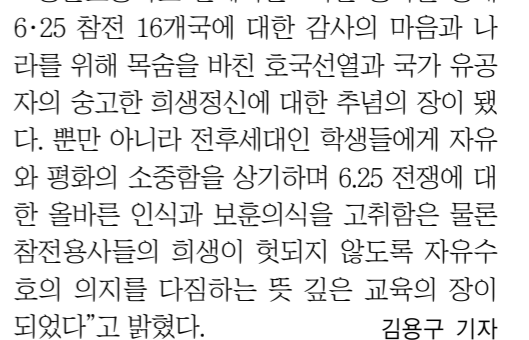
개회와 동시에 기수단에 의해 참전국 16개국 국기가 입장했고, 16개국에 대한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다음으로 호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묵념과 추념식 낭송은 회중을 숙연하게 했다. 이어서 탈북자의 실상을 고발하는 동영상 ‘강을 건너 사람들’을 함께 관람하며 북한의 실상과 전후세대인 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6·25 안동시지회장이며 당시 학도의용병으로 영전대원에 참전한 조재진 어르신으로부터 전쟁당시의 일화와 전후세대인 학생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영문고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6·25 참전 16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추념의 장이 됐다. 뿐만 아니라 전후세대인 학생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상기하며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물론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수호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 깊은 교육의 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규 기자



문경,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출전 선발 겸 국가대표선발대회 병행

문경시는 제6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선발 겸 국가대표 선발대회 병행)를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국군체육부대 육상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경북도육상경기연맹, 문경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대회 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선발, 한국주니어 육상대회와

한국 청소년 육상대회를 병행하며 전국의 각 시도 대표하는 고·대학·일반부 등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육상대회다.

27일 오전8시께 500m트랙경기를 시작으로 트랙경기 14종목과 필드경기 8종목 등 총 22종목에서 4일 간 자웅을 가리게 된다.

문경시는 육상 국가대표를 비롯한 전국육상 선수가 총 출동하고 대회기간이 길고 참가인원이 많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외지인들이 문경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이 육상페스티벌의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에 대비한 체온기 및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구비, 경기장 출입 시 점검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과 대응 방법 등 예방활동도 할 예정이다.

문경시 새마을체육과 관계자는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엘리트 육상발전과 동호인 저변 확대는 물론 문경시의 훌륭한 체육시설 활용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확신을 다지고 국제적 스포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이현준 예천군수, 산림치유문화센터 예정지 방문



향후 사업추진 계획 설명 듣고 관계자 격려

이현준 예천군수는 지난 25일 배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건강수요

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치유원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2016년 국립산림치유원 조성부지 내 예천군 지역에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가로 건립할 계획인 산림치유문화센터 예정지도 둘러보면서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 듣고 관

계자를 격려했다.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상리면 고향리 및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일원 2889ha에 총사업비 1413억원의 사업비로 산림청에서 2012년 10월에 착공해 2015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8월초에 개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예천지역에는 산림치유마을 23개동, 소통방, 상임/판매시설 등 총 27개동의 건물이 들어서며 산림 산약초원, 맨발정원, 향기정원 등 23만2363㎡의 부지에 각종 치유정원이 조성으로 편안한 산림 치유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이현준 군수는 숲의 치유 기능을 극대화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숲과 연계한 정신적 힐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군중생태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원식 기자

영주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함께해요!

온실가스 방문 진단 ‘그린 홈 닥터제’ 실시 가정 300세대 방문

영주시는 지구온난화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정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영주시 및 영주아젠다21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컨설팅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약2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 가정 300세대를 그린리더들이 직접 방문, 전기제품 대기전력과 소비전력 측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현황을 진단하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온실

가스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일명 ‘그린 홈 닥터제’로도 불리는 이번 컨설팅은년부터 작은 실천으로 시작, 지구온난화 배출 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전 지구인이 함께하자는 범세계적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진단 참가에게는 절전형 멀티탭을 보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번 하절기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사업과 병행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에너지 절약 녹색실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성기 기자

문경-한전 수안보연수원, 관광활성화 협동한다

5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받아



문경시는 지난 25일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에서 문경시와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 관광활성화와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입소 직원 및 가족의 관광 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에 입소

하는 한국전력직원 및 관계사 직원들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경을 방문할 경우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철로자전거, 석탄박물관 등 5개 시설에 대한 이용료할인(10~25%)을 받게 된다.

한국관광 100선 1위의 문경새재는 평일 3만 주말 10만 인파가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1번지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대구시, 두산중공업, NH농협은행, 대우증권, 문경시와 협약이 체결돼 임·직원과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다.

김선안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장은 “협약은 연수원 입소 직원과 가족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돼 무척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문경이 더욱 많이 알려지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산림치유영주
면적 36.5의 도시 영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 힐링중심, 행복영주!

영주시 소수시진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12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니 곳곳에 귀인이 따른다. 인기도 상승하고 사업도 번창하니 바라던 바를 성취할 운. 애정문제에 상대를 너무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하지 마라. 오히려 반발하여 멀어질 수.

보안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 모처럼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중 비밀이 누설될 수 있으니 가·자·8성씨에게 감정사는 언행을 조심할 것. 팔고자하는 것 남쪽에 길이 있고 연기되던 일들이 풀릴 듯하다.

맹인이 바늘을 찾는 것처럼 답답하고 고달프지만 노력과 지혜가 따르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을 듯. 그에 따른 결실이 크겠다. 1·9·12월생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착 마라.

시비가 예상되니 언짢은 일이 있어도 참는 미덕을 보여야겠다. 미워하던 감정을 억제하고 지혜롭게 처신함이 좋을 듯. 3·5·9월생 욕심은 금물. 투자는 길하나 도박이나 동업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윗자리에 있다고 자만심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다가 불변당할 운. 각별히 말조심을 해야 할 때이며 특히 개·양·닭띠에게 비위 상하게 하면 후회막급이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

목적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지만 경쟁자의 방해가 심하겠다. 불신감을 갖고 대하기보다는 상대를 덕으로 제압하고 더 많은 노력으로 승부를 걸자. 사랑을 하는 건 자유지만 상대를 확실히 구분하라.

사업전망도 밝고 번창할 기회가 드디어 당신 앞에 와 있다. 하지만 가정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 자신감으로 주변을 살펴며 진행하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은 금물.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고 방심하지 말고 신경 써서 보살펴 주어야. 뜻하지 않는 관재수가 있을 수. 0·6·7성씨 아무리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다스리고 감정을 억제한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듯.

노력한 보람이 결실로 나타나는 길운이다. 재물을 탐내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처신함이 좋을 듯. 애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상대를 늦추지 마라. 여유 있는 사람이 더욱 정열적으로 될 것이다.

남의 것 훑겨주다가 자기 것 잃는 줄 모른다. 일에 순서가 있는 법. 희생정신도 좋지만 자신의 것부터 정리함이 좋을 듯. 1·7·9월생 가정을 지키고 행복은 마음에 있음을 알라. 타이로부터 손재수가 우려.

필요 이상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신상에 어려운 일이 있겠으니 인내가 요구되며 아랫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다. 1·4·9월생 기본 상하는 일 많구나. 동업은 생각 말길.

재물로 인해서 친지나 동료 간 충돌이 우려되니 욕심을 버리고 자중지애 하는 것이 좋을 듯. 인기인은 상하는 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동 조심해야 구설을 면한다. 1·2·12월생 추진하는 일 길 할.

‘반려견’ 공격적인 행동 교정하는 방법은?

“산책 시 마주치는 개들에게 달려들다면 함께 뛰어보세요”

“산책할 때 개만 보면 달려들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나가거나 오토바이를 보면 흥분해서 물려고 해요”

여름철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계절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문제행동이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겨울철과 달리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려견은 밖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음에 노출이 되고, 소리 자극을 받아 짓기도 한다.

이때 조용히 시키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쫓



는 행동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산책(외부 활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려견과 함께 신선한 저녁 공기를 쉼,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오히려 공격적 행동만 부추기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호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지

만 개의 관점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산책을 하다가 마주치는 개들에게 달려들면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이를 교정해 보자.

■준비물 : 운동복 차림(주인), 리드줄, 목줄, 물, 배변봉투

반려견이 흥분해서 달려들면 뛰어서 지나가고, 다시 천천히 걷고, 흥분하면 다시 뛰다. ‘피곤한 개가 안전한 개’라는 서양 속담도 있듯 반려견의 힘을 어느 정도 빼 놓은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개가 많이 있는 목표지점에 도착하면 ‘집중노출’을 통해 다른 개들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해 준다.

1. 집에서 나와서 5-10분 정도는 계속해서 뛰어간다.(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조

절 필요)

2. 천천히 걷다가 다른 개를 만나서 흥분해 달려들면 다시 뛰다.

3. 다시 천천히 걸어가면서 목표지점까지 이동한다.

4. 목표지점에 도착하면 집중노출(개들이 많은 곳을 추천)을 통해 다른 개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한다.(반려견이 불안한 상태를 보이지 않도록 보호자는 천천히 줄을 잡고 걷는다)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려면 2-3주 이상의 인내심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교육을 하다가 포기하곤 하지만 함께 15년 이상을 가족으로 지내는데 비해 2-3의 시간은 아주 순간이란 것을 기억하자.

이창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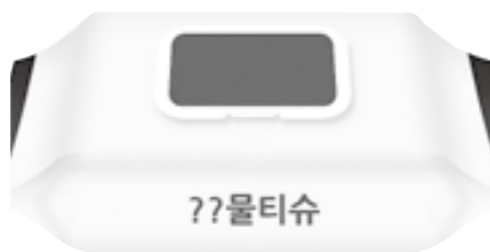
영유아용 물티슈, 7월부터 화장품법 적용

물티슈 관한 성분 논란
개정안으로 종식될까?

영유아용 물티슈에 관한 성분 논란이 화장품법 개정안으로 종식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아기물티슈를 비롯한 각종 인체제정용 물티슈는 화장품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성분은 영유아 물티슈에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CPC는 살균보존제로의 사용은 금지됐지만, 이를 원료의 배합제로 사용하



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소비자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해왔던 제품에 대한 의구심도 생겼다. 그동안 CPC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온 물티슈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CPC 성분은 미국과 유럽 등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돼 용도에 구애 받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관련 성분을 사용해왔던 업체는 성분 변경

을 위해 또 다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화장품 수준의 품질관리를 해온 곳은 제품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티슈 업계가 끊임없이 안전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영유아 물티슈 등을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물티슈 업계가 투명한 정보공개로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CPC 대신 친환경 보존제를 사용해 온 물티슈 제조업체 관계자는 “성분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국내 여러 업체가 성분을 수개월 간격으로 바꿔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잠재워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스

영화 소식 ‘나의 절친 악당들’ 첫날 4위...부진한 출발

영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이 개봉 첫날에 이어 이틀날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킨 가운데, 25일 개봉한 류승범 주연의 ‘나의 절친 악당들’(감독 임상수)은 4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날 개봉한 코미디영화 ‘19골 테드2’(감독 세스 맥팔레인)는 연달아 개봉한 한국영화에 밀려 6위에 만족해야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나의 절친 악당들’은 25일 384개 스크린에서 1596회 상영돼 2만6886명이 봤다. 매출액은 2억192만5900원이었다.

영화는 우연히 돈 가방을 손에 넣게 된 ‘지누’와 ‘미나’가 이 가방을 찾으려는 무리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청춘영화다. 류승범과 고준희가 각각 지누와 미나를 연

기했다.

‘돈의 맛’(2012) ‘하녀’(2010) ‘바람난 가족’(2003) 등을 연출한 임상수 감독이 만수무답했다.

한편 25일 박스오피스 순위는 1위 ‘연평해전’(17만379명), 2위 ‘극비수사’(9만687명), 3위 ‘주라기 월드’(7만857명), 5위 ‘소수의견’(2만5161명) 순이었다.



‘극비수사’ 200만 돌파 신작 밀리지 않는 흥행력

한국영화 ‘극비수사’의 힘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난 27일 밤 11시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비수사’는 개봉 10일째인 이날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극비수사’는 지난 18일 개봉하자마자 2015 한국영화 오프닝 스코어 경신, 2015 한국영화 최단 100만 돌파를 기록한 데 이어 개봉 2주차 신작들의 개봉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어 식지 않는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극비수사’의 이 같은 기록은 ‘강남1970’,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스물’,



‘악의 연대기’에 이어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로는 5번째로 2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라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이로써 침체에 빠졌던 한국영화 시장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극비수사’는 3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장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패션페어’ 조기신청 마감임박 30일까지 신청시 참가비 20%할인

2015 대구 패션페어는 오는 30일까지 조기신청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신청시 참가비의 2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덤 행사로 열리는 ‘FLOOR SHOW(플로어쇼)’에 지원도 가능하다.

플로어쇼 업체로 선정될 시 패션쇼 참가, 매거진 홍보 등 다양한 무료혜택이 부여된다.

‘2015 대구패션페어’는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구패션페어는 대구 대표 패션문화 행사로, 젊고 트렌디한 패션문화 선도를 하며 국내 및 해외 바이어들을 적극 초청해 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수출전문 전시회로 자리잡고 있다.

참가신청은 8월 14일까지 계속되며, 누리집(http://www.daegufashionfair.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패션페어사무국-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사업본부 마케팅지원팀 053-721-7429-33번으로 하면 된다.

2015 대구패션페어는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주관한다.

구선영 기자

제2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작품 공모

대교문화재단, 총 상금 3150만원

대교문화재단(이사장 여인국)은 ‘제2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작품 공모를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23번째로 접어드는 눈높이아동문학대전은 총 상금 315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아동문학 공모회로 대교문화재단과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대교가 주관한다.

제2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의 공모 분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상’과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창작동시’ 2개 부문이다.

우선 신인 및 기성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상’은 장편동화, 단편동화, 그림책, 동시 총 4개 부문에 걸쳐 작품 공모를 실시하며 부문별로 1명씩 최고상을 시상한다.

최고상 수상자에게는 부문별로 △장편동화 부문 1000만원 △단편동화 부문 500만원 △그림책 부문 500만원 △동시 부문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향후 출간되는 수상작에 한해 상금 외 별도 인세가 지급되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의 특전이 함께 주어진다.

작품 접수는 오는 9월30일까지 눈높이아동문학대전 홈페이지(http://dkculture.org/ko/event/child.aspx)를 통해 사전 지원 접수 후, 접수 신청서와 작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창작동시’는 자유 주제의 창작 동시 작품을 공모한다. 시상은 개인과 학교 단위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 176명에게 총 8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



권이나 도서, 상장을 시상하며 학교 단체 시상은 최다 접수 학교를 대상으로 500만원 상당의 대교 도서와 상패를 수여한다.

또 ‘우리학교 책보 캠페인’을 통해 100편 이상 응모하는 모든 학교에는 100만원 상당의 도서를 증정한다.

응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2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의 당선작 발표는 오는 1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교문화재단 누리집(www.dk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6918-2522

구선영 기자

새책안내

교사동감 / 에듀니티

“훈화 말씀이나 내빈 인사, 학년별 단체 무용이 빠진 자리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체육 활동과 게임 활동으로 바꾸니 운동회는 훨씬 즐거워 보였단다. 학생들의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241쪽)

현직 교사 김차명 씨가 자신의 경험과 전국 교사들이 보낸 사연 중에서 선별한 25개의 에피소드를 엮어 ‘교사동감’을 냈다. 각 에피소드는 ‘참쌤의 콘텐츠킴’ 이하 참쌤스쿨)이 그린 본편과 에세이,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참쌤스쿨은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 자료를 제작해 공유하는 디지털교육콘텐츠 연구모임이다. 교육대학생과 현장 교사들이 모임 멤버다.

현재 21명을 주축으로 역사 웹툰 제작,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대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부 ‘교사’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모습, 2부 ‘동감’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에세이는 미처 그림으로 옮기지 못했거나 본편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와 생각을 담았고, 부록은 참쌤스쿨 교사들이 그린 만화를 담았다. 352쪽, 1만5500원.



건강소식

옆구리살 빼는운동
파로 할 필요 없다
1분 요가면 OK ...



여름 하면 다이어트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해변, 워터파크 등에서 하는 물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누구나 '기왕이면 보기 좋은 몸매를 갖추고 나서' 물놀이를 의욕을 잃고 싶기 때문이다.

요가, 피트니스, 심지어 지방흡입술까지 다이어트 방법도 다양해졌다.

다이어트 부위도 다양한데, 그중 특히 옆구리살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중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근까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1분 요가로 옆구리살을 뺄 수 있다.

지난 4월 KBC 광주방송에서는 '옆구리살을 빼기 위한 1분 요가' 방법이 소개됐다.

1.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다.
2. 주먹을 살짝 쥐고, 팔꿈치와 어깨를 수평으로 놓는다.
3.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몸을 돌려준다. 이때, 호흡도 함께 내뿜는다.
4. 몸을 돌릴 때 팔꿈치에 닿을 정도로 무릎을 올렸다 내린다. 이때, 무릎을 올리는 방향은 반대방향이다.(주의사항: 트위스트할 때 복부를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

권성영 기자

자외선 강한 여름철
는 건강 조심하세요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눈 질환인 '군날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날개는 눈동자에 희뿌연 날개 모양의 섬유조직이 자라나는 안과 질환이다.

초기에는 통증이나 증상이 없지만 보기에 좋지 않고 크게 자랄 경우 난시가 심해지거나 시력까지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날개 진료인원은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7000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2만1000명(25.5%), 70세 이상 1만7000명(20.3%) 순이었다.

전체 환자의 80%가 50대 이상으로 중노년층에게 빈번하게 발생했다.

군날개는 강한 햇빛, 먼지, 건조한 공기 등에 많이 노출될수록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외선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강한 자외선이 군날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며 "눈에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며, 자외선이 강하거나 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비타민C 결핍증 얼마나 무섭길래...혈변, 혈뇨까지?

비타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과 함께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6대 영양소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비타민C는 피부·잇몸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 몸의 결합조직과 지지조직을 형성하는 등 그 중요성이 비타민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염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임성, 분말, 알약 등 다양한 형태로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C가 결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비타민C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우리 몸의 조직 형성인 만큼, 비타민C가 결핍되면 콜라겐, 치아등의 세포간질을 생성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비타민C가 결핍되면 모세혈관이 파열되기 때문에 치욕출혈, 괴혈병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감염에 대한 저항성 감소나 발육장애도 초래할 수 있다. 그중 괴혈병은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출혈은 물론 식욕부



진, 피로, 전신 권태감, 피로 등이 나타나며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다가 결국 잇몸, 근육 등에서 피하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심할 경우 혈뇨와 혈변이 생길 수도 있다.

괴혈병은 비타민 C 부족이 3개월 이상 진행되면 증상이 나타나므로 일상생활에서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최유희 기자

지병 없는 메르스 사망자 발생... 벌써 3번째

사망자 1명 추가돼 총 32명
8일 만에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8일 만에 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1명 더 나와 총 32명으로 늘었다. 50대 중반으로 고령자 범주에 들지 않는데다 기저질환도 없는 환자였다.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 중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퇴원자는 1명 추가돼 총 91명이 됐다. 확진자의 절반(50%)이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선 셈이다.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이 관찰 중인 격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오전 이 같은 메르스 환자 현황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1명 더 나와 총 32명으로 늘었다. 치사율은 17.6%다.

104명(55) 환자가 전날 끝내 숨졌다.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슈퍼전파자인 14번(35)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다가 바이러스를 옮겨 이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50대인데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



사진은 지난 25일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143번 환자가 치료를 받은 음압격리실을 소독하고 있다.

가 확진된 지 18일 만에 사망한 것이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료 과정에서 당뇨가 발견됐을 뿐, 평소 기저질환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3번째다. 81번(61·6월14일 사망), 98번(58·6월15일 사망)도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

전체 사망자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29명(90.6%)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중 남성이 22명(68.8%)으로 여

성(10명·31.3%)의 2배가 넘는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가 각 10명씩(31.3%)으로 가장 많았다. 80대 6명(18.8%), 50대 5명(15.6%), 40대 1명(3.1%) 순이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59명 중 15명(25.4%)이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전날(13명·21.3%)보다 2명 늘어난 것이다.

이 기준은 심폐보조기인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것이어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환

자 수는 모두 182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은 평택성모병원(發) 1차 유행이 소강 국면을 맞은 이달 3일과 20일 이후 처음이다.

퇴원한 환자는 1명 늘어 모두 91명이 됐다. 96번(42·여) 환자가 27일 병이 완치돼 퇴원 수속을 밟았다.

전체 퇴원자 중 남성이 48명(52.7%)으로 여성(43명·47.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23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대 22명(24.2%), 30대 15명(16.5%), 60대 14명(15.4%), 70대 10명(11%), 20대 6명(6.6%), 10대 1명(1.1%) 순이었다.

격리 대상자 수는 전날(2467명)보다 95명(3.9%) 늘어난 2562명이었다. 하루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자가 격리자가 1959명에서 2063명으로 104명(5.3%) 증가했다. 반면 시설(병원) 격리자는 9명(-1.8%) 줄어 499명이 됐다.

메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격리됐다가 최대 잠복기(14일)를 지나도록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일상 생활로 복귀한 격리해제자는 50명이 늘어 모두 1만3008명이 됐다.

메르스로 인해 격리를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누적 격리자는 총 1만5570명으로 집계됐다.

뉴스

자연유산으로 아이 잃은 여성 1만7151명

4년 새 연평균 3.9%씩 증가...
40-44세 고령임신 여성 위험

자연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여성이 한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이 4% 가까이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1명인 상황에서 자연유산을 경험한 여성까지 증가하는 '출산 이종고'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연유산 건강보험 환자 수가 2009년 1만4740명에서 2013년 1만7151명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만 환자 중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3.6%에서 2013년 4.3%로 증가했다. 가임기 여성들 중 자연유산 비율은 40대 초반이 가장 많은 반면 30대 초반이 가장 낮았다.

25-44세 가임기 여성을 연령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40-44세가 12.1%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34세는 3.5%로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이산희 박사는 "확률적으로 40세 이상 고령임신에서 다중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자연유산 가능성이 다른 연



령대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연유산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더 위험했다. 40-44세, 25-29세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그룹에 비해 자연유산 비율이 각각 3.9퍼센트 포인트(p), 2.8%p 높게 나타났다. 자연유산은 임신 20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종결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해 발생하는 계류유산이 대표적이다.

원인은 대부분 염색체 이상 때문이다. 염색체 이상을 유전되는 병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임신 수정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 권성영 기자

'폼생폼사' 스키니진, 하체 마비 위험

장시간 쪼그려 앉았으면 위험

스키니진을 장시간 입고 쪼그려 앉았으면 하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FP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신경학·신경외과학·정신의학 저널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서 사는 35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매우 타이이트한 스키니진을 입고 친척의 이사를 도우러 몇 시간 동안 집을 푸느라 쪼그려 앉았다가 다음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저널은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마비가 오는 것을 느꼈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등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

을 전했다.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다리가 부어 스키니진을 가위로 잘라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발목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점차 감각을 잃어갔다. 그는 정맥 내 투여기에 의지하고 나흘 후에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모든 청바지가 마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주의가 기울이면 청바지를 즐겨 입을 수 있다.

로열 애들레이드 병원 토마스 킴버 의사는 "청바지를 입고 쪼그리고 앉았으면 다리근육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 압박이 가해져 마비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상태로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다리가 불편하거나 저리면 바로 일어서서 혈액순환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유희 기자

장마철 습기 곰팡이 관리 안 하면
내 몸에 곰팡이 핀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빛이 잘 들지 않고 습기가 많은 축축한 곳은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다.

따라서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이나 벽, 바닥 등의 표면이 곰팡이의 주거지가 되는데, 사람의 몸도 예외는 아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이나 만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곰팡이에 특히 취약해 폐가 곰팡이 감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팔레의 실내 건조가 폐 곰팡이 감염의 주원인이 된다.

2012년 영국 매킨토시 건축학과 연구팀은 영국에 거주하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에서 빨래를 말리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87%의 가정이 실내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의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세탁물의 실내 건조는 공기 중의 습도를 엄청나게 높여 놓는다"며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면 2리터의 물이 방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내에서 세탁물을 말리는 가정의 25%에서 폐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 출세가 발견됐다.

곰팡이가 유발하는 가장 흔한 건강 문제는 피부질환이다. 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 무좀이다.

곰팡이로 인한 피부질환은 농가진도 있는데, 농가진은 취학 연령 미만의 아동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물질 혹은 고름집이 터지면 맑은 분비물이 나오며 이것이 마르면 황갈색 딱지를 형성한다.

남명섭 기자

쁘띠성형... 10년 젊어지는 '동안성형'

당신의 선택은?

티 없이 맑고 탄력 있는 피부는 동안외모의 첫 번째 조건이다.

여기에 볼륨감 있는 입체윤곽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 최근 동안열풍에 힘입어 실제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베이비 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형외과다. 외과·성형 전문의 김진환 성형외과 원장은 "동안성형은 크게 수술요법과 비수술요법으로 나뉜다. 가장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은 필러나 보톡스와 같은 '쁘띠성형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쁘띠성형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나 부기가 남지 않고, 시술방법도

간편해 누구나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성형수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술 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 점심이나 퇴근시간을 활용해 시술받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쁘띠성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성형에 따라 선호하는 시술 또한 다르다. 김진환성형외과 측은 따르면 여성들은 콧등이나 턱골, 눈 밑, 이마 등에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시술, 남성들은 미간이나 눈가, 이마 등에 생긴 표정주름을 없애는 보톡스 시술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톡스 제제를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저적근 부위에 주입해주면 시술 후 15일 이후부터 '사각턱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원우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9일 오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리는 '항공구조구급대 20년 무사고 안전비행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일반직 공무원 임용상 수여식에 참석한다.

김상훈 의원, 2연속 '국회 헌정대상'

“침체된 민생경제 살리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사진·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분석·평가한 결과, 김상훈 의원을 의정활동을 총칭할 수 있는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이래 소상공인 보호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힘써 왔다. 또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지역회 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에 반영시켜 실질적 개선을 이뤄 내는 등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결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현황, 법안 표결참여율, 상임위 출석률, 국회 본회의 재석률, 국감 우

수의원 여부 및 국감 출석률 등 13개 항목을 정밀조사·계량화해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상훈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뜻깊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능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해 온 것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당부로 알고,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5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고, 대구 지역에서는 조원진, 윤재옥 의원이 함께 수상한다.

이원우 기자



화남건설 박몽용 대표, 대통령 표창

합리적 기업경영 철저한 현장 관리 생산성 획기적 향상 공로

화남건설(주) 박몽용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5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합리적인 기업경영으로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존 공법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개선,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을 실현한 공로로 인정됐다. 또 '경북 새마을회 회장', '경북민족통일협의회 회장'을 지내는 등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주도했다.

특히 평소 건설인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해 경북 동부지역의 민관 협력관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

1982년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설립된 화남건설은 대구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각종 도목, 건축사업 분야와 특히 환경 분야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종합건설회사다.

철도 등 공공분야와 SOC분야, 특히 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 처리 분야에 업계 최고 수준의 시공실적을 자랑하며, 2014년 종합건설 부

문 중소기업경영대상은 물론 2009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02년 산업표창, 1997년 국민포장 등을 수상했다.

특히 2014년도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에서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이 뛰어난 내실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으며, 종합건설회사로서 협력업자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으로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해 대한 건설협회 주관 2014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남건설은 지난달 대구 사육을 수성구 두산동으로 이전한데 이어 '숲으로'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수도권 등 전국적인 주택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몽용 화남건설 대표이사는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술제일주의의 가치아래 신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기술경쟁력 제고에 힘써왔다”고 밝히고 “내실 있는 경영과 완벽한 품질로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품질에서 서비스를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구미시 8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손길

양포동 새마을부녀회 반찬만들기봉사 나서

구미시 양포동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 양포동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양포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방지숙)회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찬 만들기 봉사를 실시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반찬은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따뜻한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80여 가구에 전달 될 예정이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사랑을 듬뿍 담아 정성스럽게 반찬을 마련했다.

부녀회원들의 사랑의 릴레이는 올해로 8년째 이어져오고 있으며 연초 월례회의를 통해 반찬봉사대를 2개조로 재편성, 매월 둘째, 넷

째주 목요일에 복지관에 모여 실시하고 있다. 방지숙 새마을부녀회장은 “각자의 생업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회 빠지지 않고 적극 참석해 주시는 부녀회원들의 아낌없는 봉사정신에 고마움”을 전달했다.

박태병 양포동장은 “매년 사랑의 반찬만들기 봉사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새마을부녀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양포 만들기에 함께하자”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은진 기자

김수문 경북도의원, 초우회장 취임



초선의 초심과 기개로 제대로 평가받는 의회, 취임포부 밝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의(성, 새누리당)이 지난 26일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60명의 도의원과 김관용 도지사, 이영우 교육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초선의원 33명의 진목모임인 초우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안희영 의원(농수산, 예천), 총무에는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이 회원들의 주인을 받았다.

김수문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초우회는 의정활동을 시작하자 1년밖에 안된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만큼 초선의원들간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출신지역이나 소속 정당을 떠나 당선될 때의 초심과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당찬 기개로 열심히 일하고,

300만 도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의회를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33명의 회원중에는 시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분들이 여섯분이나 포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크게 헌신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과 경륜을 갖춘 지방정치인들이 많은 만큼, 단순한 진목모임을 벗어나 나후된 경북도의 균형발전과 미래경쟁력 강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 300만도민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김수문 회장은 기초의회인 의성군의회에서 초선으로써 당당히 제5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제10대 경북도의회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원우 기자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집수리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관 협력 재능나눔 봉사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26일 3일간 영주시 가흥로 일대에서 KT&G영주공장 상사투게더봉사단과 영주이웃사랑회 등 자원봉사자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주거 환경개선 재능나눔을 펼쳤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역의 기업체봉사단과 민간봉사단체, 영주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과의 연계 활동을 실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에 박차를 가했다.

권영순 소장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기업,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 문화조성을 구축,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기 기자



작은학교 성주 선남초, 전국을 재패하다



신수영 학생 안보사랑콘테스트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

성주군 선남초등학교 신수영(5학년) 학생은 경찰청이 주최하는 '2015 안보사랑콘테스트' 초등 글짓기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찰청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50일간 '2015 안보사랑콘테스트'를 개최, 부문별 입상자를 선정해 지난 25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우수작품 전시회와 시상식을 거행했다.

선남초는 여러 분야 중 포스터와 글짓기 부문에 다수의 학생이 참가했으나 그 중 신수영 학생이 전국에서 모여 든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 경찰청 시상식에 참가해 경찰청장상과 거액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것은 신수영 학생 개인의 명예를 넘어선 지도교사 선생(선남초 남경순)의 보람과 학교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움이 됐고 나아가 성주경찰서의 명예까지 드높이게 돼 수상을 한 바로 다음날 26일 성주경찰서장(김상진)이 직접 선남초로 방문, 격려 말과 함께 앨범선물 및 상품권까지 전달하고 기념촬영도 하며 기쁨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김미향 선남초 교장은 “학생수 40명의 작은 학교인 선남초에서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고, 이는 평소 애 작은 학교 가구의 일환으로 실시 된 다양한 나라사랑 활동 및 안보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안보교육에 노력해 국가안보를 짊어지고 갈 인재양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성 기자

김천시의회 이선명 의원 기초의원 의정대상 수상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 의원이 지난 26일 (사)전국지역신문연합회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창립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선명 의원은, 지역 곳곳을 자전거로 누비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있는 성실함의 대명사로 지역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있다. 이선명 의원은 5·6대 의원을 거친 3선 의원

으로 의정연구 및 입법활동, 시정 질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처음과 변함없는 묵묵함과 성실함으로 주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지역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친밀감 있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으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와 발걸음을 배려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온 점이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이선명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규복 기자



익을... 생각한다

■ 최종찬의 세상읽기



최종찬

국가경쟁전략연구원(NS) 원장

교육부가 2016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16년에 읍·면·도지역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246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고교무상교육 실시지역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2017년 1조2234억원, 2018년 2조54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교무상교육은 학부모 부담 완화를 명분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고교무상교육은 교육기회 확대의 의미는 없고 학비부담 완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무상교육을 한다고 추가적으로 진학률이 높아지는 않는다. 그러면 과연 고교무상교육이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무상교육 실시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작다고 생각된다. 현재 중위소득 50% 미만자의 자녀는 이미 고교학비를 지원받고 있어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 아울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과 많은 중견기업 직원들 자녀도 고교 학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

현재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고교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전체의 60%라고 한다. 이들은 무상교육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다만 학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당해 기업에서 정부로 바뀐 것 뿐이다. 학교 급식비보다는 고교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직장이 더 많으므로 고교무상교육 혜택의 체감도는 무상급식 추진 때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의 최대 수혜자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고교무상교육의 실질적인 수혜 계층은 현재 자비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와 회사의 지원을 못 받는 일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거액 자산가 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고교무상교육 수혜자 중 정부가 도와줘야 할 계층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매년 세입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교무상교육이란 이름으로 거액의 예산을 고소득층이나 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둘째, 고교무상교육은 양극화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미 무상급식 등의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시설비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크게 줄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고교무상교육이 추가로 실시되면 교육시설 투자나 학습여건을 위한 예산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공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막대한 사교육비이다. 공교육의 질 저하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신분상승을 위한 기회는 더욱 적어질 것이고 중산층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학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입장에서 고교무상교육으로 추가 혜택은 없고 공교육 질만 저하돼 오히려 손해가 된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공교육만 잘 받으면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양극화 해소 대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학비 지원은 선별적으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고교무상교육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이후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기업 지원 등 포퓰리즘적 복지 증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 충실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인가

■ 윤신근의 애완동물 이야기



윤신근

수의사

애무새를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곧 간파하게 된다. 애무새는 자신의 몸을 항상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다듬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도 정갈하게 한다. 야생의 경우 웅덩이에서 물보라를 치거나 비를 맞으며 목욕을 한다. 실내 사육을 하는 애무새가 목욕을 하고 싶으면 곧바로 욕조로 뛰어든 것이다. 샤워나 목욕을 한 애무새는 몸을 흔들며 물기를 털어낸다. 그리고 깃털을 부풀려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한다.

석분과 필수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함유된 혼합 씨앗을 모이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물은 항상 신선하도록 신경을 쓰고 석분 통은 항상 차 있도록 해준다. 애무새는 이가 없기 때문에 석분을 섭취해야 위에서 거친 씨앗을

앵무새야, 내 손가락에 앉아봐<59>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좋고 마른 가지를 매달아 쥐도 좋다. 오징어뼈 조각을 매달아주면 쪼아 먹는데 이것은 칼슘 보충을 위해 필요하다.

앵무새는 깨끗한 케이지를 좋아한다. 새장이 더러워지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새가 병에 걸린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먹이통과 먹이 핏대 등을 떼어낸 후 철망에 부착된 이물질들을 떼어낸 후 뜨거운 비눗물로 잘 닦아 준다. 그리고 휴지로 잘 닦은 후 소독약제를 뿌리고 갈개를 넣기 전에 말린다. 먹이통을 떼어내어 안 먹은 씨앗은 버리고 안쪽을 잘 닦고 신선한 먹이를 준다.

모든 새들은 처음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면 새도 주인을 신뢰하게 된다. 이쯤 되면 새들과 대화를 하고 길들이기에 들어간다. 앵무새에게 시킬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훈련은 손가락에 앉도록 하는 것이다. 이 훈련은 반복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먼저 새장 사이로 앵무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앵무새에게 갖다 대준다. 앵무새는 먹이

를 먹고 싶으면 도망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앵무새는 차츰 주인의 손이 자신에게 오도록 허락하는데 앵무새가 먹이를 먹는 동안 손가락을 새장 안에 넣어 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새의 목을 건드려 본다. 앵무새는 먹는데 열중해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때 새가 놀라지 않도록 큰 손놀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먹이를 매단 핏대를 새 가까이 접근시킨다.

새는 곧 먹이가 달린 핏대에 관심을 갖게 되며 처음에는 겁을 먹지만 핏대에 한 발을 올려놓는다. 이 동작을 인내로서 계속 반복해야 한다. 다음은 앵무새가 핏대 대신 손가락에 앉는 훈련으로 들어간다. 천천히 핏대손가락을 새 가까이 접근시킨다. 앵무새는 곧 주인의 손가락에 앉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주인의 손가락에 즐겁게 앉아 놀게 되면 이제는 그 상태 그대로 새장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새가 날개를 펴려고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앉혀야 한다. 다음은 자신의 앵무새를 손가락으로 날아오르게 하기도 하고 날다가 다시 손가락에 앉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대구소방본부 표창 4연패의 대기록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소방관서 종합평가인 '2014 국민행복 안전정책'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기관표창과 함께 받은 재정지원금 6000만원을 전액 소외계층 안전시설 확충과 소방서비스 향상에 사용할 예정이다. 4년 연속수상이라는 탁월한 실적도 자랑스럽지만 수상한 금액을 전액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씨 또한 표창 감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순직사고가 한 건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한다. 일본의 2.6배다. 그야말로 대기록이다. 그리고 소방직은 경찰직과 달리 지방직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대우도 천차만별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대우는 그만큼 열악한데,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방화복까지 불량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단 한명의 희생도 없이 말은바 사명을 다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5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을 2013년도 71.1%에서 2014년

77.9%로 6.8%나 향상시켰다. 대구보다 여건이 낫다고 보는 부산도 77.3%에 그쳐 서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관서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화재 등 재해나 응급 상황이 어디서 발생해도 신속하게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노후 주택이 많아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좁은 도로 등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예로가 많다.

소방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노후 소방차량 34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2대를 보강했다. 1만3108개 건축물에 대해 긴급구조훈련을 해 화재 발생 시 자율적인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부단한 노력이 힘입은 결과다.

오대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전국 4연패의 영예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구 시민들의 협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한다. 과연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길을 열어 주는 훌륭한 일에 얼마나 동참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자만하지 말고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오 본부장과 모든 소방서원들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당·청 갈등 누구에게도 득될 것 없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여 공개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퇴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 도중 사과문을 꺼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문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 사정상 야당이 반대하면 꼭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죄송', '송구', '거듭 죄송' 등 세 차례에 걸쳐 사과했지만 '사퇴'에 대해서는 피했다. 유 원내대표의 사과로 당청 갈등은 봉합

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재신임 결정에 대해 "대통령 인식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당이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봤으면 한다"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심지어 한 청와대고위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선 (청와대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퇴하라는 의미다.

결국 그동안 증세 논란이나 미국 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공론화 논란 당시 정부와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온 유 원내대표에 대해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엇박자 행보를 보인데 대한 불만이 여과 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례적인 안 된다. 하지만 갈등의 종말은 타협이어서 하며 극단적인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아 있는데 당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쯤에서 봉합하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기대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신문만이 아니라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19th
창간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

